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Sensus Fidei in the Life of the Church

서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신앙 감각’(Sensus fidei)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의 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폴 맥파틀런(Paul McPartlan)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참여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서지 토마스 보니노(Serge Thomas Bonino, O.P.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사무총장) 신부, 사라 버틀러(Sara Butler) 수녀, 안토니오 카스텔라노(Antonio Castellano), 아델베르 드노(Adelbert Denaux), 토미슬라브 이반치치(Tomislav Ivančić) 몬시뇰, 얀 리센(Jan Liesen) 주교, 레오나르드 산테디 키크푸(Leonard Santedi Kinkupu) 신부, 토마스 쇠딩(Thomas Söding) 교수, 예르지 스킴미크(Jerzy Szymik) 몬시뇰.

이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은 수 차례 소위원회 회의와 로마에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열린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총회 기간에 이루어졌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위원들은 최종 문서인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in the Life of the Church*)을 절대 다수의 찬성투표를 통한 ‘특별 형식으로’(in forma specifica) 승인하여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게르하르트 뮐러(Gerhard L. Müller) 추기경에게 제출하였고, 뮐러 추기경은 그 출판을 허락하였다.

서론

1. “아버지에게서 나오시어” 아들을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요한 15,26 참조)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성실하고 참된 증인”(묵시 3,14)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무에 참여한다. 신자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과 사도적 신앙을 증언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러한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교회의 신앙에 관한 매우 개인적이며 내밀한 지식을 부여하셨다. 요한의 첫째 서간은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1요한 2,20).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1요한 2,27).

2. 이리하여 신자들은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을 파악하고 그에 동의하며, 잘못된 것을 배척하도록 해 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지닌다. 이러한 초자연적 본능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침교 안에서 받은 신앙의 은사와 본질적으로 결합된 ‘신앙 감각’(Sensus fidei)이라고 불린다. 이 신앙 감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예언자적 소명을 완수하도록 해 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번째 삼종기도 말씀에서 과거에 당신이 만났던 겸손한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였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이 말에 감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¹⁾라고 말하였다. 이 할머니의 통찰은 신앙 감각을 탁월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 신앙 감각은 믿음에 관한 일을 명확히 식별하며, 참된 지혜를 촉진하고, 그 할머니의 경우처럼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신앙 감각은 오늘날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새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임이 분명하다.²⁾

3. 신학적 개념으로서 신앙 감각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실재와 관련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1티모 3,15)³⁾인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문 성사로 교회에 입교하여, 특별히 정기적으로 성찬례 거행에 함께함으로써 교회의 신앙과 생활에 참여하는 개별 신자이다. 한편으로, 신앙 감각은 신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지칭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앙 감각은 공동체적 교회적 실재, 곧 교회 자신의 신앙 본능을 가리킨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자신의 주님을 알아 뵈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 감각은 어떤 신앙 교리나 그리스도교의 실천 요소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세례 받은 이들의 합의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합의(consensus)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곧 ‘신자들의 합의’(consensus fidelium)는 어떤 특정한 교리나 실천이 사도 신앙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확고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⁴⁾ 이 문서에서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s)이라는 개념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를 올바르게 식별하는 신자의 개인적 능력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리고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um)이라는 개념은 교회 자체의 고유한 신앙 본능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된다. 문맥에 따라서 신앙 감각은 전자[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나 후자[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를 지칭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lium)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공의회는, 능동적 교계 제도와 수동적 평신도 라는 잘못된 생각, 특별히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와 ‘배우는 교회’(Ecclesia discens)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잘못된 생각을 배척하고, 모든 세례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곧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에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한다고 가르쳤다. 특별히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예언자 직무를 교계 제도만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도 수행하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공의회 가르침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데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별히 교리나 도덕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쟁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신앙 감각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이 개념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가? 신앙 전승에서 ‘신앙 감각’은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신앙 감각은 교황과 주교가 지닌 교회의 교도권, 그리고 신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⁵⁾ 신앙 감각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신앙 감각은 어떤 특정 시대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다수 의견과는 다른 것인가? 만일 다른 것이라면 신앙 감각과 다수 의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신앙 감각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교회에서 좀 더 온전히 이해되고 좀 더 신뢰할 만하게 활용될 때에 답을 얻게 될 것이다.

6. 이 문서는 신앙 감각에 대한 완벽한 해설이 아니라, 단순히 이 근본 개념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을 밝히고 심화하여 몇몇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예를 들어 교도권의 가르침과 신앙 감각의 표현임을 내세우는 ‘견해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참다운 신앙 감각을 확인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신앙 감각의 개념에 관한 성경의 근거들을 찾아보고, 이 개념이 교회의 역사와 전승에서 발전하고 작용한 방법을 파악해볼 것이다(제1장). 그리고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um)의 본질을 그것이 신자의 개인적 삶에서 드러나는 것과 더불어 살펴볼 것이다(제2장). 그리고 나서는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um), 곧 교회적인 형태의 신앙 감각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그리스도교의 신앙 교리와 실천의 발전 과정에서의 신앙 감각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어서 신앙 감각이 교도권과 신학과 각각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교회 일치 대화를 위한 신앙 감각의 중요성도 살펴볼 것이다(제3장). 끝으로, 신앙 감각을 올바르게 나누는 데 필요한 태도들을 찾아볼 것이다. 이는 올바른 신앙 감각의 인식 기준이 된다. 또한 그러한 [신앙 감각의 올바른 인식의] 결과를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몇 가지 방안들도 숙고해 볼 것이다(제4장).

제1장 성경과 전승에 나타난 ‘신앙 감각’

7. ‘신앙 감각’이란 표현은 성경에서뿐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이전까지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1코린 12,27; 에페 4,12;5,21-32; 묵시 21,9 참조)이기에 하나의 전체로는 그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진리의 영을 받은(요한 16,13 참조) 교회의 모든 지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1요한 2,20.27 참조) 그리스도교의 초기부터 드러나 있다. 이 제1장에서는 먼저 성경, 그리고 그 이후 교회의 역사 안에 나타난 이러한 생각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 성경의 가르침

가)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

8.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믿음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응답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자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바오로 사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사도들이 선포한 것을 상기시켰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1코린 15,1-2).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은 구약 성경, 특별히 하느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뿌리박고 있다(창세 15,6; 로마 4,11.17 참조). 믿음은 하느님 말씀 선포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며, 그렇기에 참으로 말씀을 믿는 이들이 받는 성령의 은사이다(1코린 12,3 참조). “믿음의 순종”(로마 1,5)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만드시는 하느님 은총의 결과이다(갈라 5,1.13 참조).

9. 복음은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선포이며,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로마 1,16-17; 참조: 마태 11,15; 루카 7,22; 이사 26,19;29,18;33,5-6;61,1-11)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느님 은총의 복음”(사도 20,24)이며, “하느님 신비의 계시”(로마 16,25)이고 “진리의 말씀”(에페 1,13)이다. 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곧 하느님 나라의 도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통한 구원과 영광의 신비가 있다. 복음에는 강력한 주체가 있다.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파견하셔서 [그들의] 언행으로 복음이 영감을 받은 권위 있는 선포의 직접적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마르 12,30) 전인격적(全人格的) 응답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응답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히브 11,1)이 된다.

10. 믿음은 신뢰의 행위이자 고백의 행위이다. 믿음의 대상인 내용(Fides quae)과 믿음의 태도인 고백(Fides qua)은 서로 나눌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신뢰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찬 복음에 대한 동의이고,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⁶⁾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믿음의 내용과 형태가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나) 믿음의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

11. 성경은 믿음의 개인적 차원이 교회적 차원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점은 ‘우리는 믿나이다.’(갈라 2,16 참조)라는 일인칭 복수의 형태와 ‘저는 믿나이다.’(갈라 2,19-20 참조)라는 일인칭 단수의 형태로 표현된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개인적이면서도 교회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에 힘입어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1코린 12,3 참조). 성령께서는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시키시고, 신자들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는 데 특별한 역할을 주신다(1코린 12,4-27 참조). 에페소서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결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에페 4,4-6).

12. 신앙은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면모들을 보여 준다.

1) 신앙은 회개를 요청한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의 선포(마르 1,4 참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복음 선포(마르 1,14 이하 참조), 당신 제자들의 사명(사도 2,38-42; 1테살 1,9 이하 참조)에서 회개는 죄의 고백이자 하느님의 계약 공동체 안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한다(로마 12,1 이하 참조).

2) 신앙은 기도와 예배(leiturgia)로 자라고 표현된다. 기도에는 청원, 탄원, 찬미, 감사와 같은 다양한 형식들이 있으며, 신앙고백은 특별한 기도 형식이다. 전례 기도, 특별히 성찬례 거행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초창기부터 그 삶에 본질적인 것이었다(사도 2,42 참조). 기도는 공개적으로 바치기도 하고(1코린 14장 참조) 숨어서 바치기도 한다(마태 6,5 이하 참조). 예수님께 주님의 기도(마태 6,9-13; 루카 11,1-4)는 신앙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다.⁷⁾ 이 기도에서 “저희”, “저희에게”, “저희의”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3) 믿음은 지식을 가져온다.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필리 3,10 이하 참조). 이러한 지식은 계시에 근거하고 신자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하느님 체험에 대한 성찰로부터 나온다. 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지혜 신학’(Wisdom Theology)이 보여 주고 있다(시편 111[110],10; 잠언 1,7;9,10; 마태 11,27; 루카 10,22 참조).

4) 신앙은 고백(marturia)을 이끈다. 성령의 힘으로 신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2티모 1,12 참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힘입어(로마 10,9 이하 참조)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게 된다(1베드 3,15). 신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이를 실천하지만, 결국 신자들의 친교 안에서 하는 것이다.

5) 신앙은 신뢰를 필요로 한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온 생애를 하느님의 약속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모든 백성이 “믿음의 영도자이자 완성자”(히브 12,2)이신 예수님의 인도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시공간을 통하여 나아가는 커다란 행렬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렬에 속하여 같은 희망과 확신을 나누고(히브 11,1 참조), 그들을 이미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에워싸고”(히브 12,1) 있다.

6) 신앙에는 책임, 특별히 애덕과 봉사(diakonia)가 따른다. 제자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마태 7,20)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열매들은 본질적으로 신앙에 속한다. 하느님 말씀의 들음에서 오는 신앙에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롭게 해주는 믿음(갈라 2,16 참조)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 야고 2,21-26 참조)이다. 자기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식별하는 기준이 된다(1요한 4,20 참조).

다) 진리를 깨닫고 증언하는 신앙인들의 능력

13.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될 것이라는 새 계약의 약속이 언급된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예레 31,33-34). 하느님 백성은 ‘새 영’을 받아 새롭게 일으켜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느님의 법규들을 깨닫고, 하느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예제 11,19-20).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의 직무와 성령의 은사를 입은 교회 생활 속에서 성취된다. 이 약속은 무엇보다 성찬례 거행으로, 신자들이 주님의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실현된다 (루카 22,20; 1코린 11,25; 로마 11,27; 히브 8,6-12;10,14-17 참조).

14.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의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호자를 약속해 주셨다(요한 14,16,26;15,26;16,7-14 참조).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요한 14,26 참조),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요한 15,26-27 참조). 하느님의 말씀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요한 16,8)이고, 제자들을 온전한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6,13 참조).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은사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 안에서, 특별히 성찬례로 기념되는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1코린 11,26 참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육을 취하신 하느님 말씀의 늘 새로운 진리와 그 말씀의 현실적 의미에 대한 영감을 지녔고(2코린 6,2 참조), 이 영감은 성령으로 인도되는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믿음을 증언하게 해 준다.

15. 모세는 온 백성이 주님의 영을 받아 예언자가 되기를 바랐다 (민수 11,29). 그의 원의는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종말론적 약속이 되었고,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리라”(사도 2,17; 요엘 3,1 참조). 약속된 영(사도 1,8 참조)은 믿는 이들에게 부어져 그들이 “하느님의 위업”(사도 2,11)을 선포할 수 있게 한다.

16.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 공동체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모아 놓았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도들의 참다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루카 1,1-4 참조). 신앙은 신자들이 서로 친교를 이루도록 한다. 신앙은 빵을 떼어 나누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쇄신되며 기도로 강화된다.

17. 예루살렘 교회에서 날마다 배급과 관련하여 그리스계 유대인들과 히브리계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열두 사도는 ‘제자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불러 모아 ‘공동체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는’ 결정을 하였다. 온 공동체는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곱 명의 남자들”을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사도 6,1-6 참조).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할례와 율법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의 모교회에 이 문제의 판단이 맡겨졌다. 이어 열린 사도 의회는 교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루카는 여기서 그 회의 결과들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사도 15,6). 그리고 베드로는 코르넬리오와 그의 가족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설명하였다(사도 15,7-11 참조).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 지역 교회에서의 선교 체험에 대하여 보고하였고(사도 15,12.1-5 참조), 야고보는 성경에 비추어 이 체험들을 살펴보고(사도 15,13-18 참조), 교회의 일치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제안하였다(사도 15,19-21 참조).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사도 15,22).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신앙의 기쁨으로 이러한 결정이 담긴 편지를 받아들였다(사도 15,23-33). 루카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적인 교회의 활동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활동에는 사도들과 원로들의 사목 직무뿐 아니라 신앙으로 협력할 자격이 있는 공동체의 참여도 관련되어 있었다.

18.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오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하느님의 지혜라고 묘사한다(1코린 1,18-25). 이러한 역설의 이해를 도우려고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ἡμεῖς δὲ νοῦν Χριστοῦ ἔχομεν; nos autem sensum Christi habemus[대중 라틴말 성경: 불가타, 1코린 2,16] ‘우리는’이란 표현은 여기서 전체 신자 공동체의 일부로서 사도들과 친교를 이루는 코린토 교회를 가리킨다(1코린 1,1-2).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하느님의 지혜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한 능력은 지혜롭다는 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특권이 아니라(1코린 1,20 참조), 오히려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1코린 1,26-29). 하지만 바오로는 코린토인 신자들이 “아직도 육적인 사람”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꾸짖었다(1코린 3,1-4). 그들의 믿음은 더 성숙해져야 하고, 그들의 언행으로 더 잘 드러나야 했기 때문이다.

19. 바오로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동체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코린토 후서 1장 24절에서 바오로는 사도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일 따름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바오로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코린 16,13)라고 코린토 신자들을 격려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도 바오로는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1테살 3,2)하려고 편지를 쓴다고 하였다. 그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공동체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다(골로 1,9;

에페 1,17-19 참조). 바오로 사도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키우려는 노력만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일종의 신앙의 대화로 성장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로마 1,12). 공동체의 신앙은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의 사목 직무의 초점이 되었다. 바오로는 자기 자신과 그의 공동체들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호 교류를 이끈 것이다.

20. 요한의 첫째 편지에는 사도 전승이 언급된다(1요한 1,1-4), 그리고 독자들에게 그들의 세례를 기억시켰다. “여러분은 기록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1요한 2,20).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기록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1요한 2,27).

21. 끝으로 요한 묵시록에서는 요한 예언자가 공동체에 쓴 모든 편지에서 하나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묵시 2-3장 참조).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묵시 2,7과 그 밖의 구절 참조). 공동체 구성원들은 성령의 살아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성령의 은사 자체인 신앙의 순종으로 신자들은 자신이 받아들인 가르침이 참된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지침을 따를 수 있게 된다.

2. 교회 역사 안에서 ‘신앙 감각’의 개념과 역할의 변천

22. 이미 교부 시대나 중세 시대에 신앙과 도덕에 대한 가르침의 식별 과정에서 ‘신자들의 합의’(consensus fidelium)의 결정적인 역할이 인식되어 왔음에도,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lium)의 개념은 종교 개혁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점차로 연구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평신도의 특별한 역할을 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문제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가) 교부 시대

23. 초기 몇 세기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전체 교회의 신앙을 사도 전승에 속한 것을 식별하는 데에 확고한 기준점으로 삼았다. 전체 교회의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관한 식별의 확실성, 더 나아가 무류성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논쟁의 상황에서 잘 드러났다. 그들은 이단자들이 도입한 위험한 새 사상들을 모든 교회가 간직하고 실천해 온 것들에 비교하면서 반박하였다.⁸⁾ 테르툴리아누스(160-225)는 모든 교회가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현존과 성령의 인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전체 교회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은 [올바른] 길을 벗어난 것이었다.⁹⁾ 아우구스티노 성인(354-430)은 “주교로부터 가장 미천한 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회가 진리를 증언한다고

말하였다.¹⁰⁾ 그리스도인들의 보편된 일치는 사도 [전통의] 신앙에 관한 결정에 확실한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곧, “세상 전체[의 교회]가 [일치하여] 내리는 판단은 틀림이 없다”(Securus judicat orbis terrarum).¹¹⁾ 요한 카시아노(360-435)는 신자들의 보편적 일치는 이단자를 물리치기에 충분한 논증이 된다고 설명하였다.¹²⁾ 레린의 빈첸스(Vinzenz von Lerins, +445)는 어디서든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지켜지고 있는(quod ubique, quod semper, quod ab omnibus creditum est) 믿음을 규범으로 소개하였다.¹³⁾

24. 신자들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려고 교부들은 공통된 신앙만이 아니라 지속된 관습의 전통에도 호소하였다. 예를 들어 예로니모 성인(345-420)은 주교들과 신자들이 간직해 온 관습을 지적하며 성인 유해 공경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다.¹⁴⁾ 에피파니오(315-403)는 마리아께서 평생 동정시심을 옹호하고자 그 누가 감히 마리아의 이름을 ‘동정’이라는 수식어 없이 언급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기도 하였다.¹⁵⁾

25. 교부 시대의 증언은 일종의 객관적 성격을 지닌, 하느님 백성 전체의 예언적 증언과 주로 연관되어 있다. 믿는 백성 전체는 그리스도의 도유, 곧 그들이 진리를 식별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약속된 성령을 받았기에 신앙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몇몇 교부들은, 신앙에서 힘을 얻고 성령을 받아 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보존하고 오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체적인 능력에 대해 숙고하였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면서, ‘내적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평신도들에게 그들의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시 진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진리에 동의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 주신다고 주장하였다.¹⁶⁾

26. 초기 5세기 동안 정경의 수립과 주요 교의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 평생 동정시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성인들의 공경과 전구의 정의에 있어서 교회 전체의 신앙이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존 헨리 뉴먼 복자(1801-1890)가 언급했듯이, 몇몇 경우에는 특히 평신도들의 신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를 4세기경의 그 유명한 아리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의한 니케아 공의회 때(325년) 단죄된 바 있다.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부터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에 이르기까지 주교들 사이에 혼란은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무류적인 교회에게 맡겨진 거룩한 전승은 주교직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선포되고 간직되었다.”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이 잠시 정지된 때도 있었다. 주교단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맞서서 다양한 의견을 내세웠던 것이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거의 60년 동안 확고하고 변치 않는 일관된 증언이 나오지 못했다.”¹⁷⁾

나) 중세 시대

27. 또한 뉴먼은 “그 이후에 독일의 마우루스(Rabanus Maurus, 780-856)나 프랑스의 라트람누스(Ratramnus, +870)와 같은 베네딕토회 학자들이 실제 현존 교리를 선언하면서 논쟁이 일어나자, 파스카시우스(Paschasius, 790-860)가 신자들의 지지로 이 교리를 견지하였다.”¹⁸⁾ 고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일은 베네딕토 12세 교황이 헌장 「복되신 하느님」(*Benedictus Deus*, 1336)으로 정의한, 영혼들이 이미 연옥 단련 이후 다가올 공심판 전에 누리는 지복직관에 관한 교의와 관련하여 있었다.¹⁹⁾ “이 정의의 바탕이 된 전승은 신자들의 합의로 명료하게 드러났다. 이는 대다수가 ‘사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거룩한 교부들’(Sancti Patres ab ipsis Apostolorum temporibus)이었던 주교들의 계승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커다란 존중을 받게 되었다. 사실 [교회] 신자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감각을 고려했으며, 감히 말하자면 그들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²⁰⁾ 몇몇 신학자들의 반대에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믿음과 신심이 신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은 중세에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한 역할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예이다.

28. 스콜라 박사들은 ‘신자들의 모임’(congregation fidelium)인 교회가 신앙의 문제에서 오류에 빠질 수 없음을 인정했다. 교회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든 진리”(요한 16,13)를 교회에 가르치시는 성령으로 보편 교회가 인도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하나의 전례로 받아들였다.²¹⁾ 그는 보편 교회의 신앙이 교회의 거룩한 성직자들을 통하여 권위 있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²²⁾ 그러나 또한 그는 개별 신자들의 개인적인 신앙 본능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고, 그는 이 신앙 본능을 믿음의 대신덕과 연결시켜 연구한 바 있다.

다) 종교 개혁과 종교 개혁 이후

29.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이 제기한 도전으로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종교 개혁가들은 성경에 담긴 하느님 말씀의 수위권(*Scriptura sola*)과 ‘만인 사제직’을 강조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러한 신념 때문에 교회 회의에서 가르치거나, 신자들의 교육을 위한 교리서를 만드는 일을 주저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교리는 무엇보다도 성전(聖傳)의 역할과 지위, 교황과 주교들의 가르치는 권위, 공의회의 무류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현존과 성령의 인도에 대한 약속이 전체 교회에, 곧 열두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²³⁾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응답으로 가톨릭 신학자들은 목자들이 하느님 백성의 신앙에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 좀 더 충실한 설명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톨릭 신학자들은 교회의 가르치는 권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0. 가톨릭 개혁을 이끈 신학자들은 체계적인 교회론의 발전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계시, 계시의 원천, 그 원천의 권위의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그들은 종교 개혁가들의 일부 교리에 대한 비판에 맞서, ‘신앙에서’(in credendo) 교회 전체, 곧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가 무류적이라는 것을 내세웠다.²⁴⁾ 사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가톨릭 교의를 옹호할 때마다 교회 전체의

판단에 계속 의존하였다. 예를 들어 공의회와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1551)은 ‘교회의 보편적인 이해’(universum Ecclesiae sensum)를 구체적인 근거로 삼았다.²⁵⁾

31.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석한 멜키올 카노(Melchior Cano, 1509-1560)는 최초로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을 자세하게 다루어, 신학적 논쟁에서 성전이 지닌 증거력에 대한 가톨릭의 자긍심을 지켰다. 카노는 자신의 논문 「신학의 여러 대목에 대하여」(*De Locis Theologicis*, 1564)²⁶⁾에서 신자들이 이른 공동 합의(consensus)를 어떤 교리나 실천이 사도 전승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²⁷⁾ 교의를 존중하며 교회의 권위에 대해 다룬 장(章)에서 그는 교회의 신앙이 오류에 빠질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호세 2,1; 1코린 11,2 참조)이자 ‘몸’(에페 5장 참조)이며,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기 때문(요한 14,16.26 참조)이었다.²⁸⁾ 또한 카노는 교회란 단어가 때로는 목자를 포함한 신자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와 목자들(principes et pastores)을 지칭한다고 여겼는데, 그들 역시 성령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²⁹⁾ 교회의 신앙은 오류에 빠질 수 없으며, 교회는 믿음 안에서 기만당할 수도 없고, 무류성이 과거 시대의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이는 교회에도 선사된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는 교회를 첫째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교회의 목자들이 교의를 권위 있게 선언하는 데 성령께서 그들의 결정에 함께하시기 때문에(에페 4,1; 1티모 3장)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르칠 때 그는 ‘교회’를 둘째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³⁰⁾

32. 로베르토 벨라르미노(Robert Bellarmin, 1542-1621)는 종교 개혁자들의 비판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면서 가시적 교회, 곧 ‘모든 신자의 보편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벨라르미노는, 신자들이 신앙에 관한 것(de fide)으로 여기는 모든 것과 주교들이 신앙에 속한 것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참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여겼다.³¹⁾ 그는 교회의 공의회들이 ‘보편 교회의 합의’(consensus Ecclesiae universalis)를 지니기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³²⁾

33. 트리엔트 공의회 후기의 다른 신학자들은 신앙 안에서(in credendo) - 목자들을 포함한 전체 교회라는 관점에서 - 교회(Ecclesia)의 무류성을 지속적으로 단언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의 역할을 상당히 정밀하게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신앙 안에서 교회의 ‘능동적’ 무류성에 대한 강조는 점차 가르치는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로 대체되어 갔다. ‘배우는 교회’는 단지 ‘수동적’ 무류성을 지닐 뿐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라) 19세기

34. 19세기는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에 대한 교의에 결정적인 시기였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논의는 부분적으로 근대 문화의 대표자들과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내적인 성숙, 역사 의식의 등장, 교부들과 중세의 신학자들에 대한 관심의 회복, 교회의 신비에 대한 새로운 탐색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 신학자들, 예를 들어 요한

아담 뮐러(Johann Adam Möhler, 1796-1838), 조반니 페로네(Giovanni Perrone, 1794-1876), 존 헨리 뉴먼 등은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을 신학의 자리(locus theologicus)로 여겨 새롭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는 성령께서 전체 교회를 어떻게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지, 또한 교회의 교의 발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신학자들은 교회 신앙을 지키고 전달하는 데에 전체 교회의 능동적인 역할, 특히 믿음을 지닌 평신도들의 조언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교도권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무염 시태)에 관한 정의(1854)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통찰을 암묵적으로 승인하였다.

35. 합리주의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보호하고자 튜빙엔 학파의 뮐러는 교회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묘사하고, 교의 발전을 이끄는 원리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의 하나의 공동체인 신자들을 고무시키고, 이끄시며, 일치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신자들 안에 신앙의 교회적 ‘의식’(공동 의식, 전체 감각), 또는 민족의식이나 민족정신과 비슷한 것을 불어넣으신다.³³⁾ 성전의 주체적 차원인 ‘신앙 감각’은 필연적으로 객관적 대상, 곧 교회의 가르침을 내포한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고 거의 성전과 동등한 신자들의 그리스도교적 ‘감각’이 결코 그 내용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³⁴⁾

36. 뉴먼은 원래 교의 발전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풀고자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의 발전 논고』(*An Essay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octrine*, 1845)라는 제목으로 교의 발전을 주제로 한 단행본을 출간하여 신앙적 발전의 특성들을 처음으로 고찰한 인물이다. 참된 발전과 그릇된 발전을 구분하려고 했던 뉴먼은 아우구스티노의 규범, 곧 “세상 전체(의 교회)가 일치하여 내리는 판단은 틀림이 없다.”(*securus judicat orbis terrarum*)는 원칙을 적용하였지만, 그는 무류적인 권위가 교회를 진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37. 뮐러와 뉴먼의 통찰을 활용하여³⁵⁾ 페로네는 마리아의 무염시태에 관한 교황의 정의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염원에 응답하려고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을 상기하였다. 그는 신자들과 그들 목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 또는 ‘공감’(conspiratio)을 이 교의의 사도적 기원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 페로네는 가장 저명한 신학자들이 ‘신자들의 신앙 감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고, ‘전통의 한 도구’가 지닌 힘이 ‘교부들의 침묵’과 같은 다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⁶⁾

38. 마리아의 무염 시태 교리를 정의하려는 비오 9세 교황의 결심에 페로네의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쳤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곧, 이 교리를 정의하기에 앞서 교황은 전 세계의 주교들에게 동정녀의 무염 시태에 대한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신심에 관한 서면 보고를 요청하였다.³⁷⁾ 이 정의가 담긴 교황령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Ineffabilis Deus*, 1854)에서 비오 9세 교황은 그가 이미 이에 관한 주교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자들의 이 교리에 대한 충심과 신심에 대하여 주교들이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특별히 요청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성경과 유사 깊은 성전, 교회의 한결 같은 감각”(perpetuus Ecclesiae sensus), “가톨릭의 목자들과 신자들의 뛰어난 합심”(singularis

catholicorum Antistitum ac fidelium conspiratio), 선임 교황들의 기억할 만한 문서들과 헌장들은³⁸⁾ 모두 이 교리를 훌륭하게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교황은 주교들과 신자들의 일치된 증언을 언급하려고 페로네의 논문에 나오는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뉴먼은 ‘합심’(conspiratio)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는 결합되어 있고, 이종의 증언이며, 서로를 밝혀 주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³⁹⁾고 설명하였다.

39. 나중에 뉴먼은 『교리 문제들에 관하여 신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에 관하여』(*On Consult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Doctrine*, 1859)라는 논문을 써서, 신자들이 (자기 목자들과 별도로) 신앙의 보존과 전달에서 자신들의 고유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사도 전승은 여러 구성원들을 통해 전해져 단일한 형식으로(per modum unius) 기능을 발휘”하지만, 주교들과 평신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 전승을 증언한다. 뉴먼은, 전승이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때로는 주교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박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백성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또한 전례, 예식, 의전, 풍습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들과 논쟁들, 운동들, 역사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⁴⁰⁾라고 말한다. 뉴먼이 볼 때에, “‘목자들과 신자들의 합심’에는 목자들에게만 유보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다.”⁴¹⁾ 뉴먼은, 자신보다 10여 년을 앞서 페로네가 마리아의 무염 시태 정의를 옹호하려고 제기한 논점들을 자기 논문에 길게 인용하고 있다.⁴²⁾

40. 교황의 무류적 교도권을 정의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영원하신 목자」(*Pastor Aeternus*)는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고, 오히려 전제로 삼았다. 「영원하신 목자」의 원래 초안이었던 「최고 목자」(*Supremi Pastoris*)에는 ‘교회의 무류권’을 다룬 독립된 장(章)이 있었다(제9장).⁴³⁾ 교황의 무류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의회 일정까지 변경되었지만, 그 기초에 대한 논의는 연기되었고, 아예 거론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빈첸스 가서(Vinzenz Gasser) 주교는 교황의 무류성의 정의에 관한 자신의 [공의회] 보고서(relatio)에서, 교황에게 주어진 특별한 보호가 교황을 교회와 분리시키며 자문과 협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⁴⁴⁾ 그의 말에 따르면, 무염 시태의 정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에 교황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통상적인 수단으로써 주교들에게 [개별] 교회들의 생각을 알리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사례가 되었다.⁴⁵⁾ 「영원하신 목자」(*Pastor Aeternus*)는 갈리카니즘(교황권 제한 운동)을 배척하려는 의도가 담긴 문구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황이 ‘성좌 선언’(ex cathedra)으로 내린 교의 정의는 “그 자체로 변경될 수 없고 교회의 동의에서 나오지 않은”(ex sese non autem ex consensu ecclesiae)⁴⁶⁾ 것이지만, 교회의 합의까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그러한 동의가 정의가 내려지기 전이든 후든 그 정의의 권위적 지위에 필요하다는 이론이다.⁴⁷⁾ 근대주의의 위기에 맞서는 답으로 나온 교황의 교령 「참으로 통탄할 결과」(*Lamentabili Sane*, 1907)는 ‘배우는 교회’에 맞서 ‘가르치는 교회’의 특권을 더 강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 교령이 확인한 것은 신자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만을 목자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명제였다.⁴⁸⁾

마) 20세기

41. 20세기의 가톨릭 신학자들은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에 관한 교리를 ‘성전’의 신학, 쇠신된 교회론, 평신도 신학의 맥락에서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가 단순히 그 목자들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성령의 활동으로 성전의 주체이거나 ‘기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평신도가 사도 신앙의 전수에 능동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교도권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정의를 이끈 자문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신앙 감각’의 교리의 재조명과 확인에서 드러난 이러한 발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42. 1946년 비오 12세 교황은 자신의 선임자들의 선례를 따라 회칙 「하느님의 어머니」(*Deiparae Virginis Mariae*)를 전 세계의 모든 주교에게 보내며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여러분의 젊은 사제들과 백성들의 신심에 관한 것을” (그들의 신앙과 충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교황은 교의의 정의에 앞서 신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관행을 재확인하였고, 교황령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 Deus*, 1950)에서 자신이 “거의 만장일치의 응답”을 받았다고 전하였다.⁴⁹⁾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신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었다.”⁵⁰⁾ 비오 12세 교황은 “통상적인 교회 교도권의 일치된 가르침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된 신앙”을 언급하며, 이제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신앙과 관련하여 비오 9세 교황이 마리아의 무염 시태에 대한 신앙에 관하여 말한 것처럼, “목자들과 신자들의 탁월한 합심”(singularis catholicorum Antistitum et fidelium conspiratio)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이러한 ‘합심’이 ‘완전히 확실하며 어떤 오류도 없이’ 마리아의 승천이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에게 맡기신 거룩한 유산에 담겨 있는 것으로 [교회가] 이를 충실하게 지키고 오류 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⁵¹⁾ 그래서 이 두 경우에 교황의 정의들은 신자들이 깊이 간직해 온 신앙을 확인하고 기념해 주고 있다.

43. 이브 콩가르는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과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에 관한 교리의 발전 과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는 『평신도 신학을 위한 지표』(*Jalons pour une Théologie du Laïc, 1953*)에서 이 교리를 교회의 예언자 직무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콩가르는 뉴먼의 연구 성과를 잘 이해하고 그와 동일한 틀, 곧 교회의 삼중 직무와 예언자 직무의 표현인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이 틀을 뉴먼에서 직접 찾은 것은 아니다.⁵²⁾ 콩가르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교계와 전체 신자의 몸에게 함께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묘사하며, 전통을 이루는 신앙의 객관적인 현실과 믿음의 은총이라는 주관적 측면을 구분하였다.⁵³⁾ 이전의 저자들이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의 구분을 강조했지만, 콩가르는 그 유기적 일치를 보여 주려고 노력하였다. “사상을 실천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곧 신자들의 몸은 개별 행위나 판단이 아니라 생생한 신앙의 유산의 보존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콩가르는 기술하였다.⁵⁴⁾ 교계의 가르침은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44. 쿵가르의 노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교회 현장’ 제1장 ‘교회의 신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그리고 바로 성전인 신자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시고”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요한 16,13 참조), 친교의 봉사로 일치시켜 주시며, 다양한 교계의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 주신다”(에페 4,11-12; 1코린 12,4; 갈라 5,22 참조).⁵⁵⁾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현장’] 제2장에서 교회를 평신도와 서품된 이들의 구분에 앞서 하나의 전체, 곧 ‘하느님 백성’으로 다룬다. ‘신앙 감각’에 대하여 언급한 항(교회 현장 12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령께 도유를 받는 신자 전체는(1요한 2,20.27 참조)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진리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초자연적 신앙 감각”은 “하느님 백성 전체, …… 곧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비로소 드러난다.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 백성은 거룩한 교도권의 인도를 받으며 교도권에 충실히 따르는 백성은 그 가르침을 이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1테살 2,13 참조).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신앙 감각’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유다 3절 참조)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자 감수성이다. 확실히 ‘신앙 감각’을 통해 하느님 백성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뿐 아니라 “올바른 판단으로 그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실생활에 더욱 충만히 적용한다.” ‘신앙 감각’은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수단이다.⁵⁶⁾

45. 이어서 교회 현장은 각각 제3장과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예언자직을 교회의 목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하시는지를 서술한다. 공의회는 주님께서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이 직무를 “당신의 이름과 권력으로 가르치는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수행한다고 가르친다(35항 참조). 이어서 평신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사도 2,17-18; 묵시 19,10 참조),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힘이 빛나게 하셨다.” 성사 생활로 굳건해진 평신도들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히브 11,1 참조) 알리는 힘찬 선포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⁵⁷⁾ 여기에서 ‘신앙 감각’은 신자들에게 선사된 그리스도의 은사로 소개되며, 신자들이 하느님 계시의 진리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선포할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라고 재차 묘사된다. ‘신앙 감각’은 신자들의 복음화 활동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46. 또한 ‘신앙 감각’은 사도 신앙의 전승이라는 맥락에서 교리 발전에 대한 공의회가 가르침에서 언급되고 있다. ‘계시 현장’에서는 사도들에게서 이어 오는 이 성전이 “성령의 보호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의회는 “전해진 것들과 말씀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방법을 지적한다. 곧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 간직하는(루카 2,19.51 참조)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을 통해 쌓이는 경험, 확고한 진리의 은사를 받은 이들[주교들]의 설교”⁵⁸⁾이다. 비록 이 대목이 ‘신앙 감각’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신자들의 명상, 공부, 신앙 감각과 관련된 체험은 모두 분명히 ‘신앙 감각’과 관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공의회 교부들이 교리

발전에 관한 뉴먼의 이론을 의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교회 현장’ 12항에서, 신앙 감각이 성령께서 일깨워주신 ‘초자연적 신앙 감각’이며, 목자들의 지도를 받는 하느님 백성이 신앙 감각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묘사한 것에 비추어 [‘계시 현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해석하면, 그것이 같은 생각을 표현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계시 현장’은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의 실천과 고백에서 주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유례가 없는 일치’를 언급하면서, 마리아에 관한 두 교의들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로 “목자들과 신자들의 탁월한 합심”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다.⁵⁹⁾

47. 공의회 이후 교도권은 ‘신앙 감각’에 관한 공의회 가르침의 중요한 점들을 되풀이 강조하면서,⁶⁰⁾ 새로운 문제를 다루었다. 곧 교회 내부(또는 외부의) 여론을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과 반드시 같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이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에서 “초자연적 신앙심은 신자들의 합의”와 “사회학적 통계 조사 연구로 얻어진 다수의 의견”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숙고하였다. 교황은 ‘신앙 감각’이 오로지 또는 필연적으로 ‘신자들의 합의’에만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서술하였다. 교회의 목자들은 “모든 신자 안에 신앙 감각을 촉진하고, 그 표현의 순수성을 고찰하여 유권적으로 판단하며, 더욱 성숙한 복음적 식별로 신자들을 교육해야 한다.”⁶¹⁾

제2장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

48. 이 제2장에서는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s)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앙이 개별 신자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숙고해 보려고 고전적인 신학에서 주어진 논증과 범주들의 틀을 활용할 것이다. 신앙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계속 견지되겠지만 그러한 고전적인 이해가 본질적인 측면 한 가지, 곧 계시된 진리에 대한 사랑을 통한 지성의 동의를 밝혀줄 것이다. 이러한 신앙 개념은 오늘날에도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제2장은 신자들의 개인 생활에서 드러나는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의 몇 가지 형태들을 들여다볼 것이다. 여기에서 ‘신앙 감각’의 개인적 측면과 교회적 측면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1. 믿음의 본능인 ‘신앙 감각’

49.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믿는 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리나 실천이 복음과 사도 신앙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영적 본능이다. ‘신앙 감각’은 믿음의 덕, 곧 신 덕(信德)과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의 속성에 속한다.⁶²⁾ ‘신앙 감각’은 이성적 성찰의 결과라기보다는 무엇 보다도 먼저 즉각적이고 본성적인 지식의 한 형태, 곧 일종의 지각(aisthesis)이기 때문에 ‘본능’에 비유된다.

50.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무엇보다 먼저 주체인 신자들과 믿음의 참다운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느님의 진리 사이에서 신덕을 갖추게 해 주는 '공동 본성'(connaturalis)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동본성은, "가"라는 개체가 "나"라는 개체와 매우 깊은 신뢰 관계를 이루어 "가"가 "나"의 본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공유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공동 본성은 특별하고 심오한 형태의 지식을 만들어 낸다. 이 지식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결합되었을 때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가 지닌 성향을 함께 지녀서 '공동 본성'으로 다른 친구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식은 개념 규정과 논리적 사유를 거쳐 나오는 객관적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는 감정 이입의 능력을 통한 지식 또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51. 모든 덕은 덕의 주체, 곧 덕을 지닌 이가 그 덕의 대상, 곧 일종의 행위와 공동 본성을 지니도록 해 준다. 여기서 덕이란 오성에 따라 또는 도덕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한 인격의 안정된 기질(또는 습관[habitus])로 이해된다. 덕은 일종의 '제2의 본성'으로, 이를 통하여 인간은 본성에 새겨진 활력을 바른 이성애 따라 자유롭게 실현하며 자신을 형성한다. 이렇게 하여 덕은 본성의 활동에 확실히 규정된 안정적 방향을 제시한다. 덕은 그러한 활동을 고결한 인간이 이제부터 '자발적으로' '편하고 담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태도로 이끈다.⁶³⁾

52. 모든 덕은 이중의 효과를 발휘한다. 먼저 덕은 덕을 지닌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상(일종의 행동 방식)에 기울게 하고, 그 다음으로 덕은 그러한 대상에 대립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떼어 놓는다. 정결의 덕을 쌓은 사람은 일종의 '육감'을 지니고, '거의 본능적으로'⁶⁴⁾ 행동하게 된다. 이는 그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곧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도덕주의자들의 개념적인 추론이 혼란과 우유부단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본능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⁶⁵⁾

53. '신앙 감각'은 모든 덕을 따르는 본능이 신앙의 덕의 경우에 취하게 되는 형식이다. "다른 덕들의 습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신앙의 습관에 따라 무엇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의 습관으로 인간의 정신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른 신앙에 적합한 것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⁶⁶⁾ 대신덕에 속하는 신앙은 하느님께서 지니신 당신 자신과 모든 사물에 대한 지혜에 신자들이 함께하도록 해 준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 지혜는 '제2의 본성'⁶⁷⁾의 형태를 지닌 것이 된다. 신자들은 은총 과 대신덕을 통하여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2베드 1,4 참조), 어느 모로 하느님의 본성을 함께 나누게 된다. 그 결과로 신자들은 이러한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근거로 하느님의 본성에 직관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생명체들이 자신의 본성에 맞거나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54. ‘신앙의 학문’(scientia fidei)으로 불릴 수 있는 신학과는 다르게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개념을 전개하고 이성적 절차를 활용하는, 신앙의 신비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아니다. 감각(sensus)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듯이, 신앙 감각은 오히려 본성적, 직접적, 즉각적 반응과 유사한 것으로 타고난 본능 또는 일종의 ‘육감’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육감을 통해 신자들은 스스로 신앙의 진리와 일치되는 것에 매달리고, 그에 어긋나는 것을 피하게 된다.⁶⁸⁾

55.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참된 신앙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⁶⁹⁾ 그러나 신자들의 현실적인 정신 세계에서는 신앙 감각의 올바른 직관이 단순한 인간적 차원의 여러 의견들, 또는 특정한 문화적 상황의 좁은 한계에 빠져 있는 오류들과 뒤섞일 수가 있다.⁷⁰⁾ “신학적 신앙 그 자체가 비록 오류를 범할 수 없을지라도, 신앙인은 그의 모든 생각이 신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릇된 의견을 지닐 수 있다.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유포되어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⁷¹⁾

56.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믿음이라는 대신덕으로부터 나온다. 이 덕은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자마자 그 진리 전체에 무조건 동의하는, 사랑으로 촉발된 내적 태도이다. 따라서 신앙은 계시 진리 전체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⁷²⁾ 여기에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⁷³⁾ 특정한 형태의 신앙 감각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자기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에 속하는 신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7.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이 믿음이라는 대신덕의 속성이기에 신앙 감각은 신덕의 성장에 따라 발달한다. 신덕이 신자들의 마음과 영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수록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그들 안에서 더욱 발달하고 강화된다. 일종의 인식으로 이해된 신앙이 이제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에, 신앙이 생기 있고 충만해지도록 하는 데에 애덕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신앙은 살아있고 실천하는 신앙(fides formata)이 된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 강화는 무엇보다도 애덕의 증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삶의 성화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로마 5,5)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신자들의 영에 담긴 ‘신앙 감각’의 발달은 특히 성령의 활동 덕분인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 넣어주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애덕의 일치를 바탕으로 하여 신자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고 자세하게 인식하도록 해 준다. “진리를 보여 주는 것이 성령의 속성이다. 감추어진 신비들을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⁷⁴⁾

58. 애덕은 신자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콜로 1,9)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그들 안에 넘치도록 해 준다.⁷⁵⁾ 사실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로마 8,14 참조) 대신덕이 그들의 삶 안에 충만해진다.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무상으로 심어진

내적 태도들인 것으로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데에 바탕이 된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특히 이해와 인식의 은사를 통해 신자들은 ‘그들이 체험하는 영적 실체’⁷⁶⁾를 더 깊이 이해하며 신앙에 어긋나는 모든 해석을 배척할 수 있게 된다.

59. 모든 신자의 ‘신앙 감각’은 개인적 삶의 여러 상황에서 ‘신앙 실천’과 중요한 상호작용을 한다. 한편으로 신앙 감각은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밝혀 주고 이끌어 준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들은 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실천하며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요한 3,21). 신자들이 가정, 직장, 문화의 관계를 통하여 처하게 되는 실존적 상황의 구체적 현실에서 신앙을 실천하면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 풍요로워진다. 신앙의 실천은 주어진 교리의 가치와 한계를 신자들이 더욱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 주고, 교리의 형식을 다듬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들은 각자의 전문 소관 분야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신자, 특히 평신도의 체험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2. 개별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 감각’의 외적 표현들

60. 신자들의 개인적 삶에서 나타나는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이 지닌 세 가지 중요한 표현 방식이 강조될 수 있다.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개별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부여해 준다.

1)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특정한 가르침이나 관행이, 그들이 교회와 친교를 이루며 실천하는 참된 신앙과 일치하는지를 식별하도록 한다(61-63항 참조).

2) 선포된 것들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들을 구분하도록 한다(64항 참조).

3) 신자들이 자신의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결심하고 실천하도록 한다(65항 참조).

61.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1요한 4,1).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어떤 교리나 관행이, 이미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참된 신앙과 일치하는지를 식별하는 능력을 신자들에게 부여해 준다. 개별 신자는 이러한 일치를 인식하거나 ‘감지하게’ 되면 스스로 그러한 가르침에 내적으로 동의하거나 그 가르침을 직접 실천한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이미 명시적으로 가르쳐진 진리든지 그렇지 않은 진리든지 관계없다.

62. 또한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개별 신자가 어떤 가르침이나 관행과 그들이 실천하는 참다운 그리스도 신앙 사이의 모든 부조화나 불협화음 또는 모순을 인식하도록 해 준다. 신자들은 한 음악 작품의 공연에서 연주가 잘못된 것을 알아채는 음악 애호가처럼 반응한다. 이 경우에 신자들은 관련된

가르침이나 관행을 내적으로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거나 나누지도 않는다. 신앙 습관(habitus)에는 신자들이 그 습관 덕분에 믿음에 어긋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도록 해 주는 힘이 들어 있다. 이는 마치 정결이, 정결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서 [인간을] 보호해 주는 것과 같다.⁷⁷⁾

63. 자신의 신앙 감각을 확신한 개별 신자가 권한 있는 목자들의 가르침에서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없다면 그러한 가르침조차 거부할 수도 있다.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요한 10,4-5).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따르면 신자는 자기 주교가 잘못된 교리를 전할 때에 비록 신학적 능력이 없어도 ‘신앙 감각’에 힘입어 그 주교에 맞설 수 있고 또한 그리 해야 하는 것이다.⁷⁸⁾ 이 경우에 신자는 자신을 신앙 진리의 궁극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에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을 주저하며 보편 교회의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⁷⁹⁾

64. 또한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신자들이 자신이 들은 것에서 참된 가톨릭 신앙에 본질적인 것을, 비록 형식적으로는 신앙에 어긋나지 않아도 단순히 부수적이거나 더 나아가 신앙의 핵심과 무관한 것과 구분하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신앙 감각 덕분에 개별 신자는 바로 동정 마리아에 대한 참다운 신심을 지니게 되고, 특정한 형태의 마리아 신심을 무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당파적인 정치적 견해가 몇대로 뒤섞인 설교도 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별 신자의 정신을 신앙의 본 질에 집중하도록 이끌며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장하고(골로 2,16-23 참조) 믿음의 정화에 기여한다.

65.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 덕분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지혜에 힘입어 신자는 새로운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올바르게 증언하고 더 나아가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예지적 차원을 확보하여, 이미 실천하고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발전이나 그에 대한 설명을 예견하도록 해 준다. 신앙의 실천이 신앙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런 방식으로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가톨릭 신앙에서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차원들을 드러내고 밝혀내 준다.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과 교회 전체의 그러한 ‘신앙 감각’, 곧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 사이의 상호 연결로 그러한 [그리스도인 실천의] 발전은 결코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적인 것이 된다. 신자들은 교회의 친교 안에서 신자들 서로 그리고 교도권과 신학자들과 늘 관계를 맺는다.

제3장 교회 생활에서의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

66. 개별 신자들의 신앙이 믿음의 주체인 교회의 신앙에 함께하듯이,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 또는 성령께서 부여하시고 힘을 주시는⁸⁰⁾ ‘교회의 감각’(sensus Ecclesiae)⁸¹⁾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신자들의 합의’(consensus fidelium)는 개별 교리나 실천이 사도 전승과 부합하는지를 식별하는 확실한 기준이 된다.⁸²⁾ 그래서 제3장에서는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의 다양한 측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회의 교리와 실천의 발전에서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숙고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교회의 생활과 현실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관계, 곧 신앙 감각과 교도권의 관계, 그리고 신앙 감각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 숙고할 것이다. 끝으로, ‘신앙 감각’의 일부 교회 일치적 측면 들에 대해서도 숙고할 것이다.

1. ‘신앙 감각’과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의 발전

67. 전체 교회, 곧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는 성경과 살아 있는 사도 전승에 담겨 있는 계시를 보호할 책임은 물론 이 계시를 역사 안에서 계속 전달해야 할 책임도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경과 성전이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을 형성”하며, 이 유산이 교회, 곧 목자들과 일치로 이룬 거룩한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맡겨져 있다고 가르친다.⁸³⁾ 공의회는 신자들이 교도권의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설명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신자들은 활기 넘치고 능동적인 교회의 주체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의회는 모든 신자가 신앙의 표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도에게서 이어 오는 성전은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⁸⁴⁾

가) ‘신앙 감각’의 회고적-미래 지향적 측면들

68. ‘신앙 감각’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드러나는지를 이해하려면 ‘신앙 감각’을 역사적 맥락, 곧 성령께서 모든 날을 주님의 목소리를 새롭게 듣는 날로 만드시는 역사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히브 3,7-1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은 전체 교회에 살아 있는 전승으로 전해졌다. 그 가운데 성경은 권위를 지닌 문자화된 증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활동을 교회가 기억하도록 해 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성경과 지속적인 사도 전승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감각을 활용한다(요한 14,26 참조).

69. 그러나 신앙과 ‘신앙 감각’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또한 지향한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역사적 실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세워진’ 이 공동체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난다”(에페 2,20-21 참조). 성령께서는 교회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 신자들에게 “앞으로 올 일들을”(요한 16,13) 미리 알려주셔서 교회가 특히 성찬례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심을 미리 맛보도록 하여 주신다(1코린 11,26).

70.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와 신자들은 늘 새로운 상황, 지식과 문화의 진보, 인류 역사의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교회와 신자들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를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계시 진리가 “언제나 더 깊이 받아들여지고 더 잘 이해되고 더욱 적절히 제시될 수”⁸⁵⁾ 있도록 하는 데에 이 시대의 징표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식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와 모든 신자가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동안에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은 복고적일 뿐 아니라 진취적이며 상호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신앙 감각’은 회고적일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것이다. 그리고 신앙 감각의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측면은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신앙 감각은 역사의 불확실성과 불명료성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는 직관을 갖추게 해 준다. 또한 ‘신앙 감각’은 인류의 문화와 학문의 진보가 말해주는 것들을 잘 식별하여 경청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신앙 감각은 신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이끌어 준다.

71. 이러한 식별 과정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신자 전체, 성직자, 신학자들 모두는 각자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때에는 인내와 존중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신앙 감각이 규명되고, 믿는 이들의 올바른 합의, 곧 ‘목자들과 신자들의 공감’(conspiratio pastorum et fidelium)이 이루어진다.

나) ‘신앙 감각’에 대한 평신도들의 기여

72. 그리스도교가 시작될 때부터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발전에 능동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동체 전체가 사도 신앙을 고백했고, 신앙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목자들은 평신도들의 증언을 참작했음을 역사는 말해 준다. 앞서 언급한 역사적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⁸⁶⁾ 여러 교리를 정의하려 할 때 평신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 때로는 교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주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경우에도 하느님 백성, 특히 평신도들은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직감이 있었다. 때로는 명확한 ‘목자들과 신자들의 공감’이 존재하기도 했고, 교회가 [신앙] 정의를 내릴 때에, ‘가르치는 교회’가 분명히 신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신자들의 합의’를 그 정의의 정당함을 밝혀 주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73.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의 발전에 평신도가 수행한 역할이다. 따라서 복음에 따른 올바른 인간 행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식별하는 데에 평신도들이 수행한 기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서는, 평신도들이 새로운 상황에 따른 도덕 명령들을 발견한 결과로 교회의 가르침이 발전하기도 하였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이은 주교 교도권의 판단은 이미 평신도들의 신앙적 직관으로 밝혀진 그리스도교적 체험에 바탕을 두기도 한 것이다. 도덕에 관한 교리의 발전에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한 역할을 밝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1) 목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엘비라 교회회의(306년경)의 규정 제20조와 비오 8세 교황이 프랑스 렌 (Rennes) 교구 주교에게 보낸 답변서 'Non esse inquietandos.'(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⁸⁷⁾ 사이에는 분명한 교리적 발전이 있었다. 이는 사업에 종사하는 평신도들 사이에 새로운 의식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신학자들이 돈의 본질에 대하여 새롭게 성찰을 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2) 특히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6)에 표현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열린 태도는 활동가이자 사상가이며, '사회적 선구자들'인 평신도들의 중요한 역할이 이끌어 낸 오랜 준비의 결실이었다.

3) 비록 비슷하기는 하지만, 비오 9세 교황의 「오류 목록」(*Syllabus*, 1864) 10항의 '자유주의적' 사상에 대한 단죄에서 [벗어 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1965)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발전 과정은 인권을 위하여 투쟁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경우들처럼 참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의 식별이 어렵다는 사실은 참된 신앙 감각을 지니는 데 필요한 태도들, 곧 참된 신앙 감각의 식별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태도들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⁸⁸⁾

2. '신앙 감각'과 교도권

가) '신앙 감각'을 경청하는 교도권

74. 세례 받은 신자들은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 수동이지 않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쇄신과 충만한 성장'을 위한 은총과 은사를 지니고 있다.⁸⁹⁾ 따라서 교도권은 하느님 백성의 생생한 목소리인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전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도 신앙에 속한 것으로 제시된 것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성령에 힘입은 사도 신앙은 교회 전체를 통하여 지탱되기 때문이다. 교도권이 단독으로 사도 신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도권은 교회 전체의 신앙 감각과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한다.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교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교도권은 신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75. '신자들의 신앙 감각'과 교도권의 연계는 먼저 전례에서 발견된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신자들은 섬김의 사제직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는 특별히 성찬례에서 수행되는 것이며,⁹⁰⁾ 주교들은 성찬례를 집전하는 '대사제'⁹¹⁾로 통상적으로 그들의 가르치는 임무도 수행한다. 성찬례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이다.⁹²⁾ 특히 성찬례에서 신자들과 그들의 목자는 한 몸이 되어 하나의 목적, 곧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찬례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형성하고

길러 주며, 신앙의 언어적 표현을 구성하고 다듬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주교들과 공의회가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초창기부터 성찬례는 교회의 교리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 성찬례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신비의 만남과 거행이 이루어지고, 자기 지역 교회에서 신자들을 모아 놓고 성찬례를 집전하는 주교들은 공의회에 모여 언어와 양식을 통하여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정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lex orandi, lex credendi).⁹³⁾

나)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강화하고, 식별하며, 판단하는 교도권

76. “진리의 확고한 은사를 받은 주교직의 후계자”⁹⁴⁾들이 지닌 교도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행사하는 진리의 직무이다. 교회 구성원 모두는 진리이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요한 14,17;15,26;16,13; 1요한 2,20,27),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갖추고 있다. 교회 전체가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느님 백성이 복음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닌 교도권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강화하고 양성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교도권을 행사하는 이들, 곧 교황과 주교들 자신들도 우선 하느님 백성이 세례 받은 이들에 속하며, 바로 이러한 사실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공유한다.

77. 교도권은 하느님 백성들이 지닌 ‘신자들의 신앙 감각’으로 여겨지는 의견들이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전승의 진리에 올바르게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린다. 뉴먼 추기경의 말대로 “이러한 전승의 어떤 부분이든 식별하고, 구별하며, 규정하고, 선포하며, 집행하는 은사는 ‘가르치는 교회’에만 맡겨져 있다.”⁹⁵⁾ 따라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신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아니라 교도권에만 유보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교도권이 봉사하는 신앙은 모든 신자 안에 살아 있는 교회의 신앙이다. 따라서 교도권의 본질적인 감독 직무는 늘 교회의 친교 생활 안에서 수행된다.

다) 수용(Reception)

78. ‘수용’은 하느님 백성이 성령의 인도로 직관이나 통찰을 얻어 이를 자신의 삶과 예배의 형식과 구조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느님 백성은 진리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이를 표현하는 적절한 형식이 사도 전승에 부합한다고 여긴다면, 이를 받아들인다. 수용의 과정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여정에 있는 순례하는 백성이 교회의 생활과 건실함에 근 본적인 것이다.

79. 성령의 모든 은사와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에 있는 수위권의 은사는 신앙과 친교에서 교회의 일치와 증진되도록 선사된 것이며,⁹⁶⁾ 신자들이 교도권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촉진된다. 신자들은 자신이 지닌 ‘신앙 감각’을 통하여 가르쳐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머물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황의 무류적인 정의는 고칠 수 없고 ‘그 자체로 교회의 동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ex sese non autem ex consensu ecclesiae.)⁹⁷⁾라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은, 교황이 교회와 분리되어 있거나 교황의 가르침이 교회의 신앙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⁹⁸⁾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와 마리아의 피승천에 관한 무류적 정의가 내려지기 전에 그 당시 교황의 분명한 뜻에 따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가리킨다.⁹⁹⁾ 여기서 뜻하는 바는 오히려 교황의 가르침, 넓게는 교황과 주교들의 모든 가르침이 성령의 은사, 곧 그들이 지닌 ‘진리의 특은’(Charisma veritatis certum)을 통하여 자체적인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80. 그러나 신자들이 교회 교도권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나 저항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 교도권과 신자 모두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기도 한다. 신자들은 주어진 가르침에 대하여 숙고하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회의 교도권에 저항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감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도권도 주어진 가르침에 대하여 숙고하며, 핵심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그 가르침을 명료화하거나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실천하는 이러한 상호 노력 자체가 교회 생활의 본질인 친교를 드러내고, 또한 교회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요한 16,13) 성령의 은총에 대한 갈망도 표현한다.

3. ‘신앙 감각’과 신학

81. 신앙의 이해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신학은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무들과 관련된 공감(conspiratio)을 통하여 신앙의 내용에 관한 객관적 명료성을 교회에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신학은 필연적으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의 존재와 올바른 활용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신학자들에게 단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 작업의 기초이며 ‘기준점’(locus)이 된다.¹⁰⁰⁾ 따라서 신학은 그 자체로 ‘신자들의 신앙 감각’과 이중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 신학자들은 ‘신앙 감각’에 의존한다. 자신들이 연구하고 규명하는 신앙이 하느님 백성의 삶 안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라는 학교에 자리를 잡아, 여기에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깊은 반향[또는 응답]을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학자들은 신자들이 참된 신앙 감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들이 신앙의 근본적 노선들을 깨닫게 해 주고, 다른 데에서 나온 가공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생긴 오류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중의 관계를 아래의 가)와 나)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해 보기로 한다.

가) 신학자들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의존한다

82. 신학이 ‘신자들의 신앙 감각’의 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면 신학은 사도 전승의 실체에 몰두하게 된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언명들의 엄격한 범위 안에 머무르기도 하고 이를 넘어서기도 한다. 교회의 가르침은 “그 자신의 모든 것과 그리고 그 자신이 믿는 모든 것들”¹⁰¹⁾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신학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라는 흙에서 자라나는 씨앗인 말씀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강조와 원의와 태도가 실제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며,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맞맞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것들을 신학적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하느님 백성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으로 자신에게 제시되는 많은 관념들과 이론들 가운데 무엇이 복음에 올바로 부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직감할 수 있다. 신학은 하느님 백성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의 수용을 탐구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3)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전례와 대중 신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상징적 언어나 신비적 언어들에 진정성을 부여하거나 인정한다. 신학자는 대중 신심이 표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¹⁰²⁾ 지역 교회의 삶과 전례에 함께하여, 오늘의 세계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역사적 문화적 실제 맥락을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학자들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대해 성찰한다

83.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시기의 세례 받은 이들 다수의 의견과 같은 것은 아니므로, 신학은 특히 교도권이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식별하는 데에 필요한 원리들과 기준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¹⁰³⁾ 비판적 수단으로 신학자들은 “신앙의 진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복잡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시하면서”¹⁰⁴⁾ ‘신자들의 신앙 감각’의 내용을 드러내고 명료화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자들은 또한 사도 전승에 충실하도록, 대중 신심의 표현들, 새로운 사조들, 교회 안의 새로운 운동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¹⁰⁵⁾ 신학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교회가 개별 사안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곧 그것이 신앙의 위기나 오해로 일어난 일탈이거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다원주의 안에 고유한 자리를 잡았으나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견인지, 아니면 그것이 신앙과 조화를 잘 이루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거나 재촉하신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식별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84. 신학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다른 방식으로도 돕는다. 신학은 신자들이 성경의 올바른 의미, 공의회 정의들의 본래 의미, 전승의 올바른 내용을 좀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도와주며, 또한 예를 들어 그 당시의 선언들에 나타나는 불명료성이나 전승된 것들에 남아 있는 문화적 요소들 때문에 여전히 논의가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또한 종전의 입장들에 수정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신앙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이해에 의존하는데 바로 이것을 신학이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신앙 감각'의 교회 일치적 측면들

85. '신앙 감각', '신자들의 신앙 감각', '신자들의 합의'라는 개념들은 모두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제적 대화에서 다뤄지거나 최소한 언급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화에서, 신자들 전체, 곧 평신도와 서품된 이들이 교회의 사도 신앙과 교회의 증언을 보존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세례 받은 이가 하느님의 도우(1요한 2,20.27)로 신앙에 관한 진리를 식별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가르치고 감독하는 특별한 책임을 수행하지만, 이는 늘 나머지 신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데에도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¹⁰⁶⁾

86. 가톨릭 교회가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의 맥락에서 '신자들의 신앙 감각'과 연관된 두 가지 특별한 질문들이 제기된다.¹⁰⁷⁾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동의를 얻은 교리들만이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참되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제안은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실천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하여 가톨릭 신학자들과 다른 전통들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들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측의 [대화] 참가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기존 교리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포기할 수는 없다.

2) 갈라진 형제들이 어느 모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져야 하는가? 여기에서 대한 대답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긍정적이다.¹⁰⁸⁾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가시적인 경계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¹⁰⁹⁾이 발견되고, 또한 다른 공동체들에서 "그리스도 신비의 일부 특징이 때로는 더 효과적으로 강조되기"¹¹⁰⁾도 하며,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가 가톨릭 교회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하고 명료화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제4장 어떻게 '신앙 감각'의 진정한 표현들이 인식될 수 있는가?

87. '신앙 감각'(Sensus fidei)은 교회 생활에 본질적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 감각의 올바른 표현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확인될 수 있는 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식별이 특별히 필요한 때는 참된 신앙 감각이 대중적인 의견들이나 특정한 관심 또는 시대정신의 단순한 표현들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긴장 관계에서다. 이 제4장의 제1절에서는 신앙 감각이 개별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례 받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세례 받은 신자들이 참으로 신앙 감각의 주체들이 되고자 할 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권위 있게 나누고자 할 때 신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들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제1절에서 제공된 기준 원칙은 그 다음에 제2절에서 신앙 감각과 관련하여 이 기준들의 실제적인 활용을 고찰하면서 보충될 것이다. 제2절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다. 첫째는 신앙 감각과 대중 신심과의 밀접한 관계, 그 다음은

신앙 감각과 교회 안팎의 대중적 의견의 필수적인 식별, 끝으로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신자들에게 어떻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이다.

1. 참된 신앙 감각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태도들

88. 단순한 하나의 태도란 없다. 오히려 교회적, 영성적, 도덕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일련의 태도들이 있을 뿐이다. 그 어떤 태도도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다루어질 수 없다. 그 태도가 다른 모든 태도와 맺는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신앙 감각을 올바르게 나누는 데에 가장 중요한 태도들만 언급되어 있다. 이는 성경적, 역사적, 조직적 연구를 통하여 나온 것으로 실제적인 식별 상황에서 유용하도록 정리된 것이다.

가) 교회 생활에의 참여

89. 가장 근본적인 첫째 태도는 교회 생활에의 능동적인 참여이다. 공식적인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 생활에의 참여는 끊임없는 기도(1테살 5,17 참조), 전례, 특히 성찬례의 적극적인 참여, 정기적인 고해성사, 성령께 받은 은사와 카리스마의 식별과 실천, 교회의 사명과 봉사(diakonia)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뜻한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의 수용,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의지, 자기 형제자매들을 권면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도 받아들일 용기를 전제로 한다.

90. 이러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공통된 것은 교회와 맺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능동적 연대, 다른 신자들과 전체 교회와의 우애감, 교회에 필요한 것과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본능이 있다. 필요한 자세는 ‘교회와 더불어 느끼기’(sentire cum ecclesia), 곧 교회와 조화를 이루며 느끼고 체험하며 지각하는 것이다. 이는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순례의 여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일치될 이루도록 한다. 또한 그것[교회와 더불어 느끼는 것]은 그들의 ‘함께 걷기’에 열쇠가 된다.

91. 신앙 감각의 주체는 교회의 삶에 참여하는 교회 지체들로 이들은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서로 지체가 된다”(로마 12,5)는 것을 알고 있다.

나) 하나님 말씀의 경청

92. 신앙 감각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최초의 증언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달된 것이기에¹¹¹⁾ 성경과 성전과의 일치하는 그러한 경청의 중심 척도가 된다. 신앙 감각은 믿음에 대한 이해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¹¹²⁾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93.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들이 성경과 성전의 증언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전례에서의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며 경청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미받으소서.”와 같은 진심 어린 응답을 하고, 신앙의 신비를 기꺼이 고백하며,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신 “예!”(2코린 1,20)에 대한 응답인 “아멘.”이다. 전례 참여는 교회의 살아 있는 전승에 참여하는 열쇠이며, 가난하고 곤궁한 이들과의 연대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목소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준다(마태 25,31-46 참조).

94. 신앙 감각의 주체는 “말씀을 ……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1테살 1,6) 교회의 지체들이다.

다) 이성에 대한 개방성

95. 신앙 감각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데에 요구되는 근본 태도의 하나는 신앙에 관한 이성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앙과 이성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¹¹³⁾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정신 (nous)을 다하여”(마르 12,30)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느님은 한 분 이시기에 하나의 진리가 있을 뿐이고, 이 진리는 각기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신앙과 이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신앙은 이성을 정확하고 그 시야를 넓혀 주며, 이성은 신앙을 정확하고 그 일관성을 밝혀 준다.¹¹⁴⁾

96. 신앙 감각의 주체는 하느님을 이성적으로 흠송하며, 신앙으로 일깨워진 이성의 역할을 자신의 신앙과 실천에서 받아들이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모든 신자는 다음과 같은 권유를 받은 이들이다.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1-2).

라) 교도권에 대한 신뢰

97. 신앙 감각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태도는 교회의 교도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자유와 깊이 간직한 확신의 행위으로써 교회의 목자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려는 마음가짐이다.¹¹⁵⁾ 교도권은 예수님의 사명, 특히 예수님의 고유한 가르치는 권위에 뿌리를 둔 것이다(마태 7,29 참조). 교도권은 성경뿐 아니라 성전과도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성경, 성전, 교도권)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들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다.”¹¹⁶⁾

98. 신앙 감각의 주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파견하신 이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루카 10,16).

마) 성덕 - 겸손, 자유, 기쁨

99. 신앙 감각에 올바르게 참여하려면 성덕이 필요하다. 성덕은 전체 교회와 개별 신자들의 소명이다.¹¹⁷⁾ 본질적으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계신 하느님께 속하는 것, 곧 세례 받고 성령의 힘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확실히 성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하느님 뜻을 따르는 것과 이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결합시켜 준다.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전례에서 거듭 간청하고 받게 되는 성령을 통하여 지탱되는 것이다(로마 1,7-8.11).

100. 교회 역사에서 성인들은 신앙 감각을 밝혀 주는 횃불들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panaghia)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어 바로 신앙의 모범이시며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다.¹¹⁸⁾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며(루카 2,51 참조)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대한 찬미의 노래를 부르시어(루카 1,46-55), 하느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고, 신앙 감각이 신자들의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커다란 원의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가 성덕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 성인 전체의 숫자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알고 계실 정도가 되었다.¹¹⁹⁾ 시복 시성된 이들은 그리스도 신앙과 삶의 가시적인 모범이 된다. 교회를 위하여, 마리아와 모든 성인은 그 기도와 열정으로 자기가 살던 시대와 모든 시대, 자기가 살던 지역과 모든 지역에서 신앙 감각의 탁월한 증인이 된다.

101. 성덕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기’(imitatio Christi)를 요구하기에(필리 2,5-8 참조), 반드시 겸손과 연관된다. 겸손은 불확실과 소심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겸손은 영적 자유의 행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보여 주신 것처럼(요한 18,20 참조) 솔직함(parrhesia)은 겸손과 관련되며 신앙 감각의 특성이기도 하다. 겸손을 실천해야 하는 첫째 장소는 바로 교회 안이다. 이 점은 신자들의 목자와의 관계에서 평신도가 지닌 덕일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직무 수행에서의 목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사도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9,35)라고 가르치셨다. 겸손은 신앙의 진리와 목자의 직무, 신자들의 요구, 특히 가장 약한 이들의 요구를 습관적으로 인식할 때 실천된다.

102. 성덕의 참된 지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로마 14,17; 참조: 1테살 1,6)이다. 이 기쁨과 평화는 심리나 정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차원에서 드러나는 은총이다. 말하자면 이는 구원의 보화,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한(마태 13,44-46)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평화와 잔잔한 기쁨인 것이다. 분명히 기쁨과 평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두 가지 가장 뚜렷한 열매들이다(갈라 5,22 참조).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느님을 향하게 하시어, 마음의 눈을 여시며 “모든 이에게 진리에 동의하고 믿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omnibus suavitatem in consentiendo et credendo veritati) 베푸신다.¹²⁰⁾ 기쁨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원한과 분노에 반대되는 것이고(에페 4,31 참조), 구원의 표징이다.¹²¹⁾ 베드로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권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1베드 4,13).

103. '신앙 감각'의 주체는 베드로 성인의 다음 권고를 듣고 응답하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필리 2,2-3).

바) 교회의 성장을 위한 노력

104. 신앙 감각의 참다운 표현은 한 몸인 교회의 성장에 기여하고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나 분파를 조장하지 않는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는 이러한 성장이야말로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한다(1코린 14장 참조). 성장이란 교회 신앙의 내적 의식과 세례로 교회 신앙 안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새로운 구성원들로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느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전이며, 성령을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1코린 3,10-17 참조). 교회의 성장은 신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찾아 발전시키고, 다른 이들도 자신의 은사[카리스마]를 찾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신자들]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고쳐 주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며,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1코린 12,12.16).

105. 신앙 감각의 주체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숙고하는 교회 지체들이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7).

2. 현실적 적용

106. '신앙 감각'에 적합한 태도들에 관한 논의는 아래와 같은 몇몇 실천적이며 사목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성찰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특히 신앙 감각과 대중 신심의 관계, '신앙 감각'과 여론 또는 다수 의견의 필수적인 구분,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들에서 신자들의 자문을 받는 방법과 같은 점들이 거론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차례대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가) '신앙 감각'과 대중 신심

107. 인간에게는 타고난 '종교심'이 있다. 종교적 질문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엄청나게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대중적 관습들을 만들어 내고, 대중 신심의 현상들은 최근에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¹²²⁾

108. '대중 신심'이라는 용어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곧 대중 신심은 교회 안의 하느님 백성 사이에서 발견되는 매우 다양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표현과 관련되거나, 더 나아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백성의 가톨릭적 지혜'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혜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그리스도와 마리아, 정신과 육체, 친교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신앙과 조국, 지성과

감성을 창조적으로 조화시킨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 백성에게 그러한 지혜는 “식별의 원칙과 복음적 직관이 되기도 한다. 이 복음적 직관은 복음이 과연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사라지고 없어지는지를 식별하게 해 준다.”¹²³⁾ 그러한 지혜, 원리, 직관인 대중 신심은 분명히 신앙 감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연구의 틀 안에서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09.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루카 10,21)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은 겸손한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것들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보여 준다. 많은 겸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고 교회의 가시적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잠재적으로라도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들에 접근하는 특권을 지닌다. 대중 신심은 특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의 표현이고, 우리 마음에 부여된 성령의 활동으로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다”(로마 5,5 참조).¹²⁴⁾

110. 원리나 본능 그리고 매우 풍부한 그리스도교적 활동, 특히 예를 들어 신심, 성지 순례, 행렬과 같은 경신례의 형태를 지닌 대중 신심은 ‘신앙 감각’에서 나와 ‘신앙 감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대중 신심은 특히 “신앙 토착화의 가장 우선적이고 근원적인 형태”임이 인정되어야 한다.¹²⁵⁾ 이러한 신심은 “성령의 고무와 인도를 받는 교회의 실재”¹²⁶⁾이고, 성령께서는 하느님 백성을 도유하시어 ‘거룩한 사제직’을 부여하신다.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11. 하느님 백성의 사제와 같은 활동은 전례 안에서 올바른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대중 신심이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¹²⁷⁾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오로 6세 교황의 가르침대로, 대중 신심은 “흔히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과 미신이 침투하기 쉽기”¹²⁸⁾ 때문에 복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황은 또한, 대중 신심이 그러한 방식으로 주의 깊게 관리되고 “올바로 이끌어진다면 풍부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중 신심은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대중 신심은 신자들에게 신앙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영웅적인 희생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중 신심에서는 하느님의 부성, 섭리, 사랑, 향구한 현존 등 하느님의 심오한 속성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보기 드문 인내, 개인적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 초연함,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는 태도, 신심과 같은 내적 자세도 볼 수 있다. …… 올바른 길로 제대로만 이끌어진다면, 대중 신심은 수많은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느님과 참되게 만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¹²⁹⁾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느 겸손한 할머니의 말에 감탄한 것은¹³⁰⁾, 바오로 6세가 여기서 표현한 존중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올바르게 이끌어진 대중 신심은 복음의 심오한 신비에 대한 통찰과 용감한 신앙 증언에서 ‘신앙 감각’의 개현이자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112. 대중 신심이 참으로 '교회적일' 때에 '올바로 이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앞서 언급한 회칙[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교회의 특성'을 표현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한 바 있다. 교회적으로 된다는 것은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며, 정치적 양극화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 교회의 목자, 교도권과 강한 친교를 이루고, 선교적 열정을 보여 주는 것을 뜻한다.¹³¹⁾ 이 기준들은 대중 신심은 물론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앙 감각'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말해 준다. 이들의 진정한 형태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두 가지 기준들은 교회의 선교 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중 신심이 지닌 '선교적 역량'을 강조하였고, '신앙 감각'의 근거로 언급될 수 있었던 것처럼 대중 신심에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적극적인 복음화의 힘이 있습니다. 이를 과소평가한다면 성령의 활동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¹³²⁾이라고 말하였다.

나) '신앙 감각'과 여론

113. 가장 난해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신앙 감각'과 교회 안팎의 여론과 다수 의견 사이의 관계이다. 여기서 '여론'이란 무엇보다도 정치계와 관련된 사회학적 개념이다. 여론의 등장은 대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델의 탄생과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하고, 정치 세력은 정부를 운영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론은 민주주의적 생활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본질적인 것이다. 또한 여론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대중 매체의 역할이다. 그래서 대중 매체는 특정 이익을 위하여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사회의 공동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114. 교회는 민주주의가 옹호하는 고상한 인간적 도덕적 가치들을 존중하지만, 교회 자체가 세속적인 정치계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 것은 아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의 신비인 교회는 그 헌법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 교회는 자기의 내부 구조와 통치 원리를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다. 따라서 대중 주권의 원칙에 따라 여론이 정치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결정력 있는 역할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여론은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 고유한 역할이 있다.

115. 대중 매체는 종교 문제에 대하여 자주 언급한다. 신앙의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긍정적인 표징이고, 언론의 자유는 기본 적인 인권에 속한다. 가톨릭 교회는 자기 교리에 대한 대화나 논쟁을 꺼리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논의를 종교 자유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를 비판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 분명히 공정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문제들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톨릭 교회는 알고 있다. 한편으로 교회 자신도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앙을 수호하고자 대중 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정보의 독점을 바라지 않으며 의견의 다양성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에 교회의 신앙과 도덕적 가르침의 참된 의미와 내용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116. 이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더 자주 들린다. 이 목소리는 때로는 보수적이고 때로는 진보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건설적인 기여를 한다. 교육을 통한 사회의 엄청난 발전은 교회 안의 관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교회 자신은 온 세상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류에게 자신의 목소리와 권리를 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교리, 전례, 봉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표징이다. 교회의 많은 지체들은 그들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자신들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본당과 여러 단체와 운동을 통하여 스스로 조직을 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인터넷의] 사회 매체를 통하여 다른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추구하게 되었다.

117. 교회 안팎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새로운 형태의 주의와 비판을 필요로 하고 식별 기술의 쇄신도 요청한다.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거나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특정 이익 단체들의 영향도 존재한다. 또한 특정한 때와 장소에만 적용되는 신념들도 있다.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에서 신앙의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교리를 현대적 관심과 의견들에 짜 맞추려는 압력도 있다.

118. 신앙 감각을 단순히 여론이나 다수의 의견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둘은 어떤 경우에도 같을 수 없다.

1) 무엇보다도 ‘신앙 감각’은 분명히 신앙과 연관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신앙을 지닌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앙 감각’은 분명히 사회 전체의 여론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결합시키는 중심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매우 다양한 영향들이 모여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위에 나왔던 태도에 관한 논의가 암시한 것처럼, ‘신앙 감각’은 단순히 교회 안의 여론이나 다수의 의견과 동일시될 수 없다. 의견이 아니라 신앙이 관심의 필수적인 초점이 되는 것이다. 의견은 흔히 특정 집단이나 문화의 일시적인 생각이나 욕구를 흔히 변덕스럽고 일시적으로 표현한 것들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신앙은 모든 시대와 지역에 맞는 유일한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

2)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서 신앙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증언한 이들은 흔히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 구약 성경은 자주 왕이나 사제들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맞서는 때로는 극소수인 믿음을 지닌 ‘거룩한 남은 이들’을 언급한다. 그리스도교 자체는 공권력의 비난과 박해를 받은 작은 공동체로 시작하였다. 교회 역사에서 프란치스코회나 도미니코회, 또는 후기의 예수회와 같은 복음적 운동은, 여러 주교와 신학자들의 의심을 산 작은 단체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다른 종교들이나 세속적 이념들로부터 신앙의 진리를 무시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를 약화시키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믿음을 지닌 작은 이들”(마르 9,42 참조)의 목소리를 식별하고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19. ‘신앙 감각’을 여론이나 다수의 의견과 구분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신앙 감각’을 나누는 데 필요한 위에서 언급한 태도들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이들은 내적 일치를 이룬 하느님 백성 전체이다. 교도권과 신학은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일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스도교 진리에 관한 지배적인 개념에 대하여 복음의 실제적인 진리로 맞서야 한다. 그런데 교회의 경험에 따르면, 때로는 신앙의 진리가 신학자들의 노력이나 다수 주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속에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 신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길

120.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에 참으로 평등한 존엄을 지닌다. 이러한 평등에 힘입어 “모두가 자신들의 고유한 소명과 과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함께 기여한다.”¹³³⁾ 따라서 때때로 신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권한과 지위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의견을 사목자들에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신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만, 이때에 신자들은 언제나 신앙과 도덕의 품위를 존중해야 하며, 목자들에 대하여 합당한 존경심을 나타내며, 공동선과 개인의 존엄을 고려해야 한다.”¹³⁴⁾ 이에 따라 교회의 목자들은 신자들, 특히 평신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자문을 구해야 한다.

121. ‘자문을 구한다.’라는 말은 어떤 판단이나 조언을 구할 뿐 아니라, 사실을 탐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교회의 목자들은 통치[또는 ‘관리’]와 사목적 문제들에서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의 조언이나 판단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거나 구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교도권이 교리를 정의할 때 사실 탐구의 의미에서 신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자들의 몸[교회]은 계시된 교리 전통의 사실에 대한 증언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스도교 전체를 통한 신자들의 합의는 ‘오류가 없는’ 교회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¹³⁵⁾

122. 신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행은 교회 생활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로마법의 원리가 사용되기도 했다. “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논의하고 승인해야 한다”(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robari debet). 교회 생활의 세 가지 영역들, 곧 신앙, 성사, 통치에서는 “전통이 교계의 구조를 연대(association)와 동의(agreement)의 구체적인 규범과 결합시켰고, 이는 ‘사도 실행’(apostolic practice) 또는 ‘사도 전승’으로 이해되었다.”¹³⁶⁾

123. 대다수의 신자들이 교리와 도덕에 관한 교도권의 결정들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족한 수용은 현대 문화에 대한 불충분한 비판적 수용에 따른 하느님 백성의 신앙의 약화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권위자들이 신자들의 경험과 신앙 감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교도권이 신자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고 특정한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 주기도 할 것이다.¹³⁷⁾

124. 물론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들과 사안들에 대하여 교회의 구성원들 간에 지속적인 소통과 정례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교회 안에서 여론은 그러한 소통의 중요한 형식이다. “교회는 산 몸이므로 그 지체들 사이의 대화로 형성되는 여론이 필요하다. 여론은 교회의 생각과 행동이 진보하는 조건이다.”¹³⁸⁾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생각과 의견의 공개적인 교환에 대한 동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이후 곧바로 이루어졌고, 이는 ‘신앙 감각’과 그리스도인의 애덕에 대한 공의회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러한 공개적인 의견 교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마음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 자유는 신앙심과 사랑에 기인되어야 한다. 신앙심은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것이며, 이로써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의 거룩한 교도직의 지도를 받아 탈선함이 없이 초기 교회에 전해진 신앙에 충실하며, 바른 판단으로 그 신앙에 더욱 깊어지고, 그 신앙을 더욱 완전히 생활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가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으로써 우리의 자유가 승격되어 그리스도의 자유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어, 우리도 당신의 뜻대로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자들은 교회 안에서 언론의 자유로 정당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규범과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¹³⁹⁾

125. 이러한 의견 교환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식별해 주는 으뜸가는 수단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자들에게 좀 더 공식적으로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사제와 다른 그리스도 신자들이 초대될 수 있는 개별 공의회나¹⁴⁰⁾, 주교들이 평신도들을 위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구 대의원 회의¹⁴¹⁾,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곧 성직자들이거나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이거나, 특히 평신도들로 구성된 각 교구의 사목 평의회¹⁴²⁾,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 본당 사목구에서 자기 직책에 따라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목 활동이 증진되도록 참여하는 본당의 사제 평의회 등이 그것이다.¹⁴³⁾

126.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자문 조직들은 목자들과 평신도들 이 상대방의 고유한 은혜[또는 ‘카리스마’]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경험들과 생각들에 늘 신중하게 귀를 기울일 때에 비로소 교회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차원에서의 겸손한 경청과 관련된 이들의 세심한 자문이야말로 살아 있고 활기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결어

1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새로운 성령 강림¹⁴⁴⁾으로 공의회 이후 교황들이 요청해 온 새 복음화에 교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공의회는 모든 세례 받은 이가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고, ‘신앙 감각’이야말로 새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새롭게 강조하였다.¹⁴⁵⁾ ‘신앙 감각’을 통하여 신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것을 인식하고,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순례하는 백성의 신앙 ‘여정을 위한 새로운 길’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다. 주교들과 신부들이 이 신앙 여정에서 백성들을 가까이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느님 백성들에 의해 감지된 ‘새로운 길’을 인식하는 것이다.¹⁴⁶⁾ 성령께서 열어 주시고 밝혀 주신 이 새로운 길의 식별이 새복음화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128. ‘신앙 감각’은 역사 속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주체인 전체 교회가 지닌 ‘믿음에서의 무류성’(infallibilitas in credendo)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¹⁴⁷⁾ 성령으로 굳건해진 신앙 감각은 교회가 주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인과 공동체로서 주님께 충실하면서 살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신앙 감각은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함께 생각하며’¹⁴⁸⁾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목표를 나누도록 해 주는 본능이다. 신앙 감각은 목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주며, 그들 각자의 은사와 소명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에 본질적이며 풍요를 가져다주는 대화를 이끈다.

1. 프란치스코, 2013년 3월 17일 삼중 기도 말씀.

2.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14쇄), 119-120항 참조.

3. 『성경』(2005년) 인용(역자 주).

4.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교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ogma*, 1989)에서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lium)을 하느님 백성이 “선포에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인식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고하게 지키도록 하는” “내적 감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C, II, 1 참조). 또한 이 문서는 교의 해석에서 ‘신자들의 합의’(consensus fidelium)가 지닌 역할을 강조하였다(C, II, 4 참조).

5. 최근 발표된 문서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Theology Today: Perspectives, Principles and Criteria*, 2012)에서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신앙 감각이 신학적 작업을 위한 기초이며 자리임을 확인하였다(35항 참조).

6.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Theology Today: Perspectives, Principles and Criteria*),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13항 참조.

7. 테르툴리아누스, 「기도론」(*De Oratone*), I, 6., 『라틴 그리스도교 문학 전집』(*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이하 CCSL), 제1권, 258면 참조.

8. 이브 콩가르(Yves Marie-Joseph Congar)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lium)을 활용한 여러 교리 논쟁들을 찾아냈다. Y. Congar, 『평신도 신학의 이정표』(*Jalons pour une Théologie du Laïcat*, Paris: Éditions du Cerf, 1953), 450-453면; 영어 번역본 『교회 안의 평신도』, 첨부 II: 교부들 안에 나타난 ‘신자들의 신앙 감각’(*Lay People in the Church: A Study for a Theology of Lay People*, London: Chapman, 1965, Appendix II: The ‘Sensus Fidelium’ in the Fathers), 465-467면 참조.

9. 테르툴리아누스, 「이단자들에 대한 항고」(*De Præscriptione Hæreticorum*) 21.28, CCSL 제1권, 202-203.209면 참조.

10. 아우구스티노, 「성인들의 예정론」(*De Prædestinatione Sanctorum*), XIV, 27, 『라틴 교부 총서』(*Patrologia Latina: PL*) 44권, 980면 참조. 아우구스티노는 이 점을 ‘지혜서’가 정경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그렇게 언급하였다.

11. 아우구스티노, *Contra Epistolam Parmeniani*, III, 24(PL 43, 101). *De Baptismo*, IV, xxiv, 31(PL 43, 174)(유아 세례에 관하여): “Quod universa tenet Ecclesia, nec conciliis institutum, sed semper retentum est, nonnisi auctoritate apostolica traditum rectissime creditur.”(보편 교회가 간직하는 것은 논의를 통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어 온 것이다. 사도의 권위로 전해진 것만이 가장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상이다.)

12. 요한 카시아노, *De Incarnatione Christi*, I, 6(PL 50, 29-30): “Suffiere ergo solus nunc ad confutandum haeresim deberet consensus omnium, quia indubitatae veritatis manifestatio est auctoritas universorum.”(그러므로 이제 이단 반박에는 모두의 합의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전체의 권위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13. Vinzenz von Lerins, *Commonitorium* II, 5(CCSL, 64, p.149).
14. 예로니모, *Adversus Vigilantium* 5(CCSL 79C, p.11-13).
15. Epiphanius von Salamis, *Panarion haereticorum*, 78, 6; 「초세기 그리스도교 그리스어 저자들」(*Die Griechischen Christlichen Schriftsteller der Ersten Jahrhunderte*), Epiphanius, Bd 3, p.456.
16. 아우구스티노, 「요한 복음 강해」(*In Iohannis Evangelium Tractatus*), XX, 3(CCSL 36, 204); 「시편 상해」(*Ennaratio in Psalmum*), 120,7(PL 37, 1611).
17. John Henry Newman, *On Consult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Doctrine*, (편) John Coulson, London: Geoffrey Chapman, 1961), 75-101; 75. 77. Cf. J. H. Newman, *The Arians of the Fourth Century*(1833; 3. Ed. 1871). Y. 콩가르는 이 문제에 대한 뉴먼의 분석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명한 조건들을 제시한 바 있다. Cf. Y. Congar, *Jalons pour une Théologie du Laïcité*, 395.
18. John Henry Newman, *On Consult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Doctrine*, p.104.
19. 『신앙, 도덕에 관한 선언, 규정, 신경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이하 DH), 1000 참조.
20. John Henry Newman, *On Consult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Doctrine*, p.70.
21.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IIa-IIae, q.1, a.9, s.c.; IIIa, q.83, a.5, s.c.(미사 전례에 관하여); Quodl. IX, q.8 (성인품에 관하여). Cf. Bonaventura, *Commentaria in IV Librum Sententiarum*, d.4, p.2, dub. 2(Opera Omnia, vol.4, Quaracchi, 1889, p.105): “[Fides Ecclesiae Militantis] quamvis possit deficere in aliquibus personis specialiter, generaliter tamen numquam deficit nec deficiet, iuxta illud Matthaei ultimo: ‘Ecce ego vobiscum sum usque ad consumationem saeculi’”([투쟁하는 교회의 신앙은] 아무리 어떤 특정한 인성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는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마태오 복음의 저 마지막 말씀에 따라 결코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d.18, p.2, a. un. q.4(p.490). 「신학 대전」 IIa-IIae, q.2, a.6, ad 3)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보편 교회가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의 믿음이 꺼지지 않을 것(루카 22,32 참조)이라고 약속하신 것에 연결시키고 있다.
22. 「신학 대전」, IIa IIae, q.1, a.10 ; q.11, a. 2, ad 3.
23. Martin Luther, *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Praecludium*, WA 6, 566-567 참조; Johannes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 8,11; 예수님의 약속에 관하여 마태오 복음 28장 19절과 요한 복음 14장 16-17절을 보라.
24. Gustave Thils, *L’Infaillibilité du Peuple chrétien “in credendo”*: Notes de théologie post-tridentine(Paris, Desclée de Brouwer, 1963) 참조.
25. DH 1637, 또한 DH 1726. 같은 표현은 다음에서도 찾을 수 있다: Yves M.-J. Congar, *La Tradition et les traditions*, II. Essai théologique (Paris, Fayard, 1963), pp.82-83.
26. *De Locis Theologicis*, Ed. Juan Belda Plans(Madrid, 2006). 카노는 10가지 신학의 자리(locis)를 열거하였다: 성경(Sacra Scriptura),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승(traditiones Christi et apostolorum), 가톨릭 교회(Ecclesia Catholica), 공의회들(Concilia), 로마 교회(Ecclesia Romana), 교부들(sancti veteres), 스콜라 신학자들(theologi scholastici), 자연 이성 (ratio naturalis), 철학(philosophi), 인류 역사(humana historia).
27. *De Locis Theologicis*, IV, 3(Plans ed., p.117). “인간의 힘으로는 이를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공동 합의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도들의 전승에서 나오는 것이다.”(Si quidquam est nunc in Ecclesia communi fidelium consensione probatum, quod tamen humana potestas efficere non potuit, id ex apostolorum traditione necessario derivatum est.)
28. *De Locis Theologicis*, I, 4(p.144-146).
29. *De Locis Theologicis*, I, 4(p.149): “모든 신자들의 모임인 보편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자들도

언제나 이러한 진리의 영을 지니고 있다.”(Non solum Ecclesia universalis, id est, collectio omnium fidelium hunc veritatis spiritum semper habet, sed eundem habent etiam Ecclesiae principes et pastores.) 네 번째 책에서 카노는 교황이 성좌 선언으로 교리를 선포할 때 지니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30. *De Locis Theologicis*, I, 4(pp.150-151): “그러므로 이전에는 교회 곧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 간직하는[또는 ‘보존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교회는 목자들과 박사들이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고, 그들이 그리스도 신앙에 속하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은 가장 참되다고 단언한다.”(Priores itaque conclusiones illud astruebant, quicquid ecclesia, hoc est, omnium fidelium concio teneret, id verum esse. Haec autem illud affirmat pastores ecclesiae doctores in fide errare non posse, sed quicquid fidelem populum docent, quod ad Christi fidem attineat, esse verissimum.)

31.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De controversiis christianae fidei*(Venice, 1721), II, I, lib. 3, cap. 14: “그리고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를 주교 전체만이 아니라 신자 전체를 근거로[또는 전체에 관련하여] 이해한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곧 모든 신자들이 간직하는 것은 그 명제에 대한 감각이 존재한다. 곧, 모든 신자들이 신앙에 관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참되고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교가 신앙에 속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참되고 또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Et cum dicimus Ecclesiam non posse errare, id intelligimus tam de universitate fidelium quam de universitate Episcoporum, ita ut sensus sit eius propositionis, ecclesia non potest errare, id est, id quod tenent omnes fideles tanquam de fide, necessario est verum et de fide; et similiter id quod docent omnes Episcopi tanquam ad fidem pertinens, necessario est verum et de fide.) (p.73).

32. *De Controversiis II*, I, lib. 2, cap. 2: “공의회는 일반적으로 보편 교회를 대표하므로 보편 교회의 동의를 받는다. 교회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이고 승인된 세계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없다.”(Concilium generale repraesentat Ecclesiam universam, et proinde consensum habet Ecclesiae universalis; quare si Ecclesia non potest errare, neque Concilium oecumenicum, legitimum et approbatum, potest errare.) (p.28)

33. J. A. Möhler, 『교회 안의 일치 또는 가톨릭 정신의 원리』(*Die Einheit in der Kirche Oder das Prinzip des Katholizismus*)[1825], Ed. J. R. Geiselmann (Köln und Olten: Jakob Hegner, 1957), 8 ff., 50 ff.

34. J. A. Möhler,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의 대립의 상징이나 표현』(*Symbolik oder Darstellung der dogmatischen Gegensätze der Katholiken und Protestanten, nach ihren öffentlichen Bekenntnisschriften*)[1832], Ed. J. R. Geiselmann (Köln und Olten, Jakob Hegner, 1958), § 38. 개신교의 개인적 해석의 원칙에 맞서 밀리는 전체 교회의 판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35. 1847년에 뉴먼과 페로네가 만나 교의 발전에 관한 뉴먼의 생각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다. 뉴먼은 이 맥락에서 ‘교회 감각’(sensus ecclesiae)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Cf. T. Lynch, Ed., “The Newman-Perrone Paper on Development”, *Gregorianum* 16(1935), p.402-447, 특별히 3 장, 2항과 5항.

36. Ioannis Perrone,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무염 시태가 교의 선언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De Immaculato B. V. Mariae Conceptu an Dogmatico Decreto Definiri Possit*)(Romae, 1847), p.139, 143-145. 페로네는, 마리아의 무염 시태가 ‘조금이라도 문제시되었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p.156). 그는 교도권이 교리 정의를 내리는 데에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의존한 몇몇 경우들을 찾아내었다. 예를 들면 의인들의 영혼이 죽은 이들의 부활 이전에 이미 하느님을 지복 직관한다는 교리와 같은 경우이다(pp.147-148).

37. 비오 9세, 회칙 *Ubi primum*(1849), Nr.6 참조.

38. 비오 9세, 교황령 *Ineffabilis Deus*(1854).

39. John Henry Newman, *On Consult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Doctrine*, pp.70-71.

40. 같은 책, p.63, cf. p.65. 뉴먼은 대개 ‘목자들’과 ‘신자들’을 구분한다. 때로 그는 박사(신학자)들을 특정한 증언자 계층으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평신도’를 특별히 지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위 성직자들을 신자들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41. 같은 책, p.104.
42. 같은 책, pp.64-70; 각주 37번 참조.
43. *Mansi*, III(51), 542-543. 여기서 교회의 무류성은 모든 계시된 진리에까지 확장된다. 여기에는 성경과 성전, 곧 신앙의 유산, 그리고 비록 계시되지 않아도 무류성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44. *Mansi*, IV(52), 1213-14.
45. *Ibid*, 1217. 가서(Gasser)는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정례적인 것으로 성립될 수는 없었다.”(*sed talis casus non potest statui pro regula.*)고 덧붙인다.
46. *DH* 3074. 갈리카니즘의 관점을 보여 주는 ‘사대 조문’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판단이 “교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다.
47. Gasser, in *Mansi*, 52, 1213-1214를 보라.
48. 확인된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는 진리의 정의에서 ‘가르치는 교회’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배우는 교회’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뿐인 방식으로 협력한다.
49. 비오12세, 교황령 *Munificentissimus Deus*, 12.
50. *Munificentissimus Deus*, 41.
51. *Munificentissimus Deus*, 12.
52. Congar, “*Jalons pour une Théologie du Laïc*” 6장을 보라. 이와 관련된 주제는 뉴먼의 *Via Media* 3판(1877)의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53. Congar, *Jalons pour une Théologie du Laïc*, p.398. 54. 같은 책, p.399.
55. 교회 헌장 4항.
56. 교회 헌장 12항. 공의회 문헌의 몇몇 다른 곳에서는 신자 감각이나 교회의 감각을 교회 헌장 12항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 감각’(sensus Ecclesiae)(계시 헌장 23항), ‘사도 정신’(sensus apostolicus)(평신도 교령 25항), ‘가톨릭 정신’(Sensus catholicus)(평신도 교령 30항),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신’(Sensus Christi et Ecclesiae), ‘교회와 이루는 친교 의식’(Sensus communionis cum Ecclesia)(선교 교령 19항), ‘신자들의 그리스도교 감각’(Sensus christianus fidelium)(사목 헌장 52항),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교 정신’(integer christianus sensus)(사목 헌장 62항) 등이 있다.
57. 교회 헌장 35항.
58. 계시 헌장 8항.
59. 계시 헌장 10항; 교황령 *Ineffabilis Deus*, 18항; 교황령 *Munificentissimus Deus*, 12항 참조.
6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 14항을 보면,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세 직무에 참여하는데, 평신도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그들이 교회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Sensum fidei supernaturalis Ecclesiae)을 통해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교회 헌장 12항 참조); 또한 교회 헌장 12항과 35항, 계시 헌장 8항과 관련하여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교회에 관한 현대의 오류를 반박하는 「가톨릭 교리 선언」(*Mysterium Ecclesiae*, 1973. 6.24.) 2항 참조.
6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 5항. 「신학자들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Donum Veritatis*, 1990)에서 교황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신앙 감각’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일렀다. ‘신앙 감각’은 “신학적 진리의 특성”이며 신자 개인이 “진리에 개인적으로 충실하도록” 해 주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리하여 신자가 믿는 것이 교회가 믿는 것이 된다. 신자들의 모든 의견이 반드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흔들리기에, 공의회가 지적인 것처럼 ‘신앙 감각’과 목자들의 교도권으로 하느님 백성을 이끄는 것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교회 헌장 35항 참조).

62. 신자들에게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신덕을 전제로 하며, 실제로 신자들이 어떤 교리가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신앙의 생생한 체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기의 신앙 행위에서 필요한 식별 과정은 일반적으로 유추된 형태로만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에 속할 수 있다.
6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04항.
6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 12항.
65.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IIa-IIae, q.45, a.2. 참조.
66. 「신학 대전」, IIa-IIae, q.1, a.4, ad 3. Cf. IIa-IIae, q.2, a.3, ad 2. 참조.
67. 토마스 아퀴나스, *Scriptum*, III, d.23, q.3, a.3, q1a 2, ad 2 참조: “신앙의 습관은 도덕적 덕의 습관이나 원칙들의 습관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성의 방식에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앙에 머무는 동안에는, 신앙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다.”(*Habitus fidei cum non rationi innitatur, inclinatur per modum naturae, sicut et habitus moralium virtutum, et sicut habitus principiorum; et ideo quamdiu manet, nihil contra fidem credit.*)
68. Cf. J. A. Möhler, *Symbolik*, § 38: “교회의 지도와 활력이 의지하는 하느님의 영은 인간의 영과 일치하여 그리스도교 고유 감각, 곧 심오하고 안전하게 이끄는 감각이 된다. 이 감각은 진리 안에 성립되는 것이기에 [우리를 또는 인간을] 모든 진리로 이끈다.”
69. 본능은 대상과 직접 관계를 맺기에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본능은 그 자체로 오류가 없다. 그러나 동물적 본능은 정해진 환경의 맥락 안에서만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상황이 변하면, 동물적 본능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영적 본능은 그 범위가 더 넓고 섬세하다.
70. 「신학 대전」, IIa-IIae, q.1, a.3, ad 3 참조
71. 교황청 신앙교리성,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Donum Veritatis*), 35.
72. 「신학 대전」, IIa-IIae, q.2, a.5-8 참조.
73. 교회 헌장 15항.
74. 토마스 아퀴나스, *Expositio super Ioannis evangelium*, c.14, lect. 4.
75.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91-92항 참조.
76. 계시 헌장 8항.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킨 성령의 은사에 관한 신학에서 특히 인식의 은사는, 믿을 것을 식별하는 능력인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을 완성해 준다. 「신학 대전」, IIa-IIae, q.9, a.1 co. et ad 2 참조.
77. 토마스 아퀴나스, *Quaestiones disputatae de veritate*, q.14, a.10, ad 10; cf. *Scriptum*, III, d.25, q.2, a.1, q1a 2, ad 3.
78. 토마스 아퀴나스, *Scriptum*, III, d.25, q.2, a.1, q1a 4, ad 3: “(신자는) 신앙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제에게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아랫사람이 무지하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사실 신앙의 습관은 잘못된 가르침을 거스르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러한 습관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모든 영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 하므로 인간은 이상한 가르침에 동의하지 말고 정보를 더 얻거나 그저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느님 신비를 향한 모험을 감행하지 말아야 한다.
79. 토마스 아퀴나스, *Scriptum*, III, d.25, q.2, a.1, q1a 2, ad 3; *Quaestiones disputatae de veritate*, q.14, a.11, ad 2 참조.
80. Yves M.-J. Congar, *La Tradition et les traditions* 제2권의 “전승의 주체 인 ‘교회’”(“*L’Ecclesia*”, *sujet de la Tradition*, pp.81-101)와 “전승의 초월적 주체이신 성령”(“*Le Saint-Esprit, Sujet transcendant de la Tradition*, pp.101-108) 참조.
81. 이 문서의 30항 참조.
82. 이 문서의 3항 참조.
83. 계시 헌장 10항 참조.
84. 계시 헌장 8항; 교회 헌장 12.37항; 평신도 교령 2.3항; 사목 헌장 43항 참조.

85. 사목 헌장 44항.
86. 제1장의 “2. 교회 역사 안에서 ‘신앙 감각’의 개념과 역할의 변천”을 참고하라.
87. 『신앙, 도덕에 관한 선언, 규정, 신경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DH 2722- 2724(고리대금에 관하여) 참조.
88. 제4장 참조.
89. 교회 헌장 12항
90. 교회 헌장 10.34항 참조.
91. 교회 헌장 21.26항; 전례 헌장 41항 참조.
92. 전례 헌장 10항; 교회 헌장 11항 참조.
9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4항; 참조: 이레네오, 『이단 반박』(*Adversus Haeresus*), IV,18,5. “우리의 사유 방식은 성체성사와 일치하며, 또한 성체 성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인해 준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7항 참조).
94. 계시 헌장 8항.
95. John Henry Newman, *On Consult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Doctrine*, p.63.
96.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영원하신 목자』(*Pastor Aeternus*), DH 3051
참조.
97. 『영원하신 목자』, 4장, DH 3074.
98. 이 문서의 40항 참조.
99. 이 문서의 38항과 42항 참조.
100.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35항 참조.
101. 계시 헌장 8항.
102. 이 문서의 107-112항 참조.
103. 이 문서의 제4장을 참조할 것.
104.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35항;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Donum Veritatis*), 1990, 한 국천주교주교회의의 회보 62호, 42면 이하, 2-5,6-7항.
105.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35항 참조.
106. 이 점에 관해서 다음에 언급되는 공동 선언의 내용들은 주목할 만하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국제 대화 공동 위원회, 『교회의 성사적 본성의 교회론적 교회법적 결과: 교회적 친교, 협의 정신, 권위; 라베나 선언』(*Ecclesiological and Canonical Consequences of the Sacramental Nature of the Church: Ecclesial Communion, Conciliarity and Authority, the Ravenna Statement*), 2007, 7항; 성공회-로마 가톨릭 교회 국제 위원회, 『권위의 은사』(*The Gift of Authority*), 1999, 29항; 개신교-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에 관한 대화(1977-1984), 『보고서』(*Report*), 1.3장; 그리스도의 제자회-로마 가톨릭 교회 국제 대화 위원회, 『그리스도 안의 친교인 교회』(*The Church as Communion in Christ*), 1992, 40.45항;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세계 감리교 협의회 공동 위원회, 『생명의 말씀』(*The Word of Life*), 1995, 56.58항.
107.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하나 되게 하소서』(*Ut Unum Sunt*), 1995, 3항 참조.
108. 56항 참조.
109. 교회 헌장 8항 참조.
110. 『하나 되게 하소서』, 14항; 참조: 28.57항. 여기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회 일치화를 위한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은사의 교환’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Communio Notio*, 1992)에서 가톨릭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과의 친교를 상실하여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17항 참조).

111. 교회 현장 12항; 계시 현장 8항 참조.
112. 1테살 2,13, 인용한 교회 현장 12항 참조.
113.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 1998 참조.
114.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35.63.64.84항 참조.
115. 같은 문헌, 74-80항.
116. 계시 현장 10항.
117. 교회 현장 제5장 교회의 보편적 성화 소명 참조.
1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963항 참조.
119. 사목 현장 11.22항 참조.
120. 계시 현장 5항 참조.
121. 프란치스코, 회칙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5항 참조.
122. 교황청 경신성사성, 「대중 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 원칙과 지침」 (*Directory on Popular Piety and the Liturgy: Principles and Guidelines*) (이하 「지침서」), 2001, 10항 참조. “대중 종교심’은 보편적 체험을 가리킨다. 민족과 국가, 그들의 집단적 표현의 핵심에는 언제나 종교적 차원이 들어 있다. 모든 민족은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나 자연과 사회, 역사에 대한 개념을 예배 수단들을 통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독특한 통합은 영적 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123. 제3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푸에블라 문헌』, 라틴 아메리카의 현 재와 미래의 복음화, 448(보고타, 1979년), 131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6항에서 인용됨.
124. 「복음의 기쁨」, 125항.
125. 요제프 라칭거, ‘신학적 주석’(Commento teologico), 교황청 신앙교리성, 「파티마의 메시지」(*Il messaggio di Fatima*), 바티칸 도서관, 바티칸 시국, 2000, 35면. 「지침서」 91항에서 재인용.
126. 「지침서」, 50항.
127. 전례 현장 13항.
128.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48항. Y. 콩가르는 “의심스러운 성취와 비정상적인 신앙심(engouements douteux et dévotions aberrantes)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지나친 책임을 돌리는 것을 삼가야 한다. 교계의 특권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그렇다.(On se gardera de trop attribuer au sensus fidelium: non seulement au regard des prérogatives de la hiérarchie, mais en soi) (Jalons pour une théologie du laïc, p.399).
129. 「현대의 복음 선교」, 48항;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CELAM)의 제4차 총회의 개막 연설(Santo Domingo, 1992.10.12.)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본질적으로 가톨릭적 뿌리를 지닌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 신심은 복음에 대한 충실을 보장하고 이단에 대응하는 도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12항 참조). 제3차 총회의 최종 문서를 언급하면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참으로 토착화되었을 때 대중 신심은 백성들이 계속 자신의 복음화를 이루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복음의 기쁨」, 122항).
130. 「복음의 기쁨」, 2항 참조.
131. 참조: 「현대의 복음 선교」, 58항. 여기서 기초 공동체가 참으로 교회적이라는 필연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132. 「복음의 기쁨」, 126항.
133. 교회법 제208조.
134. 교회법 제212조 3항.
135. John Henry Newman, *On Consult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Doctrine*, p.63; 자문(consult)란 단어가 지닌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pp.54-55 을 보라.

136. Yves M.-J. Congar, “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검토하고 승인해야만 한다”(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robari debet. in 『프랑스법과 외국법의 역사 비평』(*Revue historique de droit francais et etranger*) 36(1958), pp.210-259, pp.224-228.
137. 앞의 책, §§ 78-80.
138. 교황청 사회홍보위원회, 훈령 「일치와 발전」(*Communio et Progressio*, 1971), 115항; 여기에서는 비오 7세 교황의 말도 인용하였다: “[교회에] 여론이 없다면 교회 생활 속에 무엇인가 걸림되어 있을 것이며 그 탓은 사목자들과 신자들에게 있다”(1950년 2월 17일 로마의 국제 가톨릭 정기 간행물 편집인 모임 참석자들에 하신 연설, *AAS* 18(1950), 251면).
139. 「일치와 발전」, 116항.
140. 교회법 제443조 4항 참조.
141. 교회법 제463조 2항 참조.
142. 교회법 제512조 1항 참조.
143. 교회법 제536조 1항 참조.
144. 이는 요한 23세 교황이 곧 개최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희망과 기도를 표현할 때 되풀이하여 사용한 문장이다. 참조: 교황령 「인간 구원」(*Humanae Salutis*), 1961, 23항.
145. 「인간 구원」, 2.45.65.70.112항 참조.
146.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들과 봉헌 생활자, 사목평의회 위원들에게 한 연설, 아시시의 산 루피노, 2013.10.4., 참조. 교황은 교구 시노드, 곧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걷기’의 특별 거행들에서 ‘성령께서 평신도, 하느님 백성, 모든 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147. Pater Antonio Spadaro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터뷰(2013.9.21.); 참조: 「복음의 기쁨」, 119항.
148. 위와 같음. 「복음의 기쁨」, 90항 참조.